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심으로 달려갈 100년

제1편 서설

제 1 장 나라의 정세와 기독교의 전래

제1절 나라의 정세

제2절 가톨릭의 전래

제3절 개신교의 전래

제 2 장 경산교회 설립

제1절 경산의 역사 및 현황

제2절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제3절 경산교회 설립

제4절 설립년월일에 대한 고증



제 1 편 서 설

제 1 장 나라의 정세와 기독교의 전래

제1절 나라의 정세

우리경산교회가 이 지방에서 어두움을 깨뜨리고 생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설립하던 19세기 전후한 세계정세나 나라의 정세는 그야말로 격동기였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격류를 외면한 채 실권을 쥐 대원군은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이웃 일본이 일찍이 문호를 개방하여 개화의 길을 택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심산유곡의 산삼 같은 극동의 신비로운 은둔국(Hermit Nation)이었다. 도처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고 개신교보다 100여년 앞서 들어온 가톨릭교회는 쇄국정책의 큰 희생물이 되어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당시의 국내정세는 실로 복잡하였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치열한 대립, 대원군과 그의 자부인 민비 사이의 세력다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강의 치열한 다툼, 더욱 일본과 청국, 일본과 러시아 등의 세력다툼,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국교회 초기 세계정세는 일대 변동기였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도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심산유곡의 신비의 나라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쇄국정책에도 세계대세를 막지 못했다.

그 후 병자수호조약을 통해 한국의 문호는 개방되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의 침입은 한국강토에서 충돌되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제2절 가톨릭의 전래

우리 개신교의 전래의 때를 알렌(Horace N. Allen)의사가 입국한 1884년으로 정한다면 가톨릭은 꼭 1세기 앞서 동지사(冬至使)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은 1784년으로 정한다. 이승훈 이전의 한국과 기독교와의 접촉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987년에 발견된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강동 2리 왕유동의 분처(分處)바위의 도마석상으로 불리는 암각상의 발견, 그리고 여기에는 ‘도마’라고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가 새겨져있다. 한국과 고대기독교와의 접촉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임이 분명하며 경교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 고고학적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신라시대에 중국을 통하여 경교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경교란 기독교의 일파로 그 창시자는 네스토리우스(Nestorius)이다. 경주에서 발견된 석제 십자가, 성모소상 등이 있다. 8세기경 중국을 통한 경교와의 접촉 이외에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접촉은 1593년 임진왜란 때의 접촉이었다. 이것은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접촉으로 이때 일본에 체류하던 스페인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경교 돌십자가

Cespedes)가 일본군 장군이며 가톨릭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요청으로 내한 하였는데 그는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신부였다.

1636년(인조 14년)에는 병자호란을 통한 천주교와의 접촉이 있었다. 이런 간헐적인 접촉을 통해 17세기를 거쳐 가면서 실학파들을 통해 서교(西敎), 곧 천주교가 한국에 소개되고 1784년에는 이승훈이 영세를 받았고, 같은 해에 서울 명례동에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집회가 개최되었다.

제3절 개신교의 전래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1884년 9월 상주 선교사인 알렌(H.N Allen) 의사 부부의 입국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한국선교의 사명을 갖고 인천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이날을 개신교 전래의 해로 삼는다. 그 이전은 개별적인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혹은 이시기를 선교사의 개척활동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 벨테브레와 하멜

벨테브레(Jan Janes Weltevree, 朴燕)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개신교도로서는 첫 외국인의 내한이었다. 1627년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일본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조선에 도착하여 영주하게 되었다. 병서(兵書)에 밝은 그는 대포를 만들어 국방에 이바지하기도 했으며 기독교적 신앙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멜(Handrich Hamel, 哈梅兒)은 1653년 8월 15일(효종 4년) 제주도에 표류하여 14년간 억류되어 64명중 생존자 15명이 탈출하여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하멜은 자신을 장로교인으로 처음부터 공개하였다. 하멜은 조선을 탈출하여 귀국한 후 ‘하멜표류기’(1668년)를 발간하여 조선을 세계에 소개하였다.



하멜표류기 :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이 1666년 귀국할 때까지 14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견문록

2. 맥스웰과 바실 홀(Murry Maxwell & Basil Hall)

1816년 영국이 중국으로 보낸 사절단을 호위한 함장 맥스웰과 바실 홀은 한국 서해안의 해도 작성을 위해 내한하여 백령도와 청도에 상륙한 일이 있다. 이때 바실 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전하였다고 한다. 그는 돌아가서 ‘한국 서해안 항해기’ (원제목 : 한국 서해안과 류구열도 항해기,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Loo choo Island, 1818)를 발간하여 우리나라를 소개하였다.

이상의 네 사람은 우리나라에 얼마동안 머문 개신교도였다. 한국선교에 남긴 공헌은 알 수 없다.

3. 칼 귀츨라프(Karl F.A. Gutzlaff, 郭實獵)

이 땅을 방문한 첫선교사는 실제로 칼 귀츨라프 목사이다. ‘네덜란드 선교회’에 소속된 독일인이었다.

중국선편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백령도에 1832년 7월 17일에 도착하였다. 그 후 서해안 흥천 고금도 금강입구, 제주도 등에서 30일간 머물며 전도하였다. 성경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하고 의약품을 나누어주며 병을 고쳤다. 또한 감자를 나누어주고 재배법을 가르쳤으니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경로였다.



칼 귀츨라프



토마스 목사

4.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65년)

칼 귀츨라프 목사가 한국을 다녀간 지 33년이 지난 후 영국출신 토마스 목사가 한국 땅을 찾아왔다. 토마스 목사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입국했으나 제너럴셔먼호 상인들과 평양성 수비대 사이의 전쟁으로 배는 불타고, 토마스 목사는 1866년 9월 2일 평양외곽의 축섬에서 순교하였다. 순교당시 27세의 젊은 나이로 신고 온 성경을 끝까지 던지며 복음을 전하였다. 한국 개신교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다.

5.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1866년)

스코틀랜드 성공회의 만주지방 주재원으로 그 지방의 조선인을 상대로 성경을 반포하면서 전도하였다.

6.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John Ross & John Macintyre, 1873년)

이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만주지방에 출입하던 조선인들에게 고려문에 와서 전도하였는데 특히 로스목사는 동북만주산간지역에 살던 조선인 부락을 찾아가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였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번역본을 완간하였다.

7. 백홍준과 의주교회(의주기도소) 1883년

성경 번역을 완성한 로스목사는 한국 내 반입을 시도하였다. 백홍준은 성경을 분리하여 그 종이를 말아 끈으로 만들어 국내 반입에 성공하였다. 백홍준 집에 약 10명이 모여 교회를 세웠으나 정식교회는 못되고 기도소 수준이었다.

8. 서상륜과 솔래교회(1883년)

서상륜은 1881년에 만주 우장에서 세례를 받고 로스목사를 도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인쇄하였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 된 것이다.



서상륜

서상륜은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동생 서경조와 함께 신변의 위험을 느껴 당숙이 살고 있는 황해도 솔래(松川)로 이사하였다. 열심히 전도하여 순전히 저들의 힘으로 초가 8간의 한국 최초의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9. 이수정(李樹廷 1884년)

이수정은 조선말 고관(홍문관 교리, 正5品)이었다. 1881년 일본으로 파송된 12 신사유람단의 한 사람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1882년 어느 날 당시 일본 농학계 석학이던 츠다센(津田仙) 박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1883년 4월 29일에 야스카와(安川亭) 목사로부터 녹스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주재 미국성서공회 총무 헨리 루우미스(Henry Loomis)목사는 이수정에게 성경번역을 부탁하였다. 이수정은 그해, 즉 1883년 말까지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였고 1884년 초에는 마가복음이 출판되었다. 이수정은 성경번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미국인 선교사의 파송에도 이바지 하였다.



이수정

10. 알렌(Horace Newton Allen, 安連, 1858~1932)의사의 입국

1882년 5월 22일 미국과의 수호조약을 맺게 됨으로 쇄국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1884년 9월 22일에 드디어 의사인 알렌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교의 자유가 없으므로 그는 공사관 공의의 신분으로 입국하였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때 개화파의 칼에 맞은 수구파의 거두 민영익이 빈사상태에 빠진 것을 의술과 정



알렌 의사

성으로 생명을 구하므로 알렌은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얻게 되어 고종의 어의로 임명받았다. 1885년에 병원설립 허락을 받아 광혜원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으로 선교하는 좋은 계기를 이룩하였다.

11.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阿扁赫羅, 1858~1902) 선교사의 입국



언더우드 목사(26세)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이며,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이다. 이들은 미국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저녁 무렵에 제물포(인천)에 도착하였다. 먼저 그해 1월에 일본에 도착하여 조선어를 공부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26세 독신으로 입국하였다. 서울에서는 알렌의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는 거리에서, 시골 마을에서 전도에 힘썼다. 1886년 7월 11일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노도사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솔래교회를 방문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그 후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14명의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새문안 교회의 설립이다. 그 후 의주에 가서 압록강 배위에서도 세례를 베풀었다.

한편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1887년 10월 9일 정동에서 정동 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12. 후속 선교사의 입국과 선교지 분할

① 후속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 후에 각 교파의 선교사들이 속속 입국하였다.

<주요 입국 선교사>

이 름	소 속	연 도
데이비스(J. Henry Davies)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1889
게일(J.S. Gale)	캐나다 YMCA 선교사	1890
마펏(Samuel Moffet)	미국 북장로회	1890
콜페(C. John Corfe)	영국 성공회	1890
베어드(William M. Baird)	미국 북장로회	1891
레이놀드(W.D. Reynold)	미국 남장로회	1892
매켄지(W.J. Makenzie)	캐나다 장로회	1893
레이드(C.E. Reid)	미국 북장로회	1895
아담스(James E. Adams)	미국 북장로회	1895
카우만(C.E. Cowman)	성결교 동양 선교회	1907
길 보른(E.A. Gilbrone)	성결교 동양 선교회	1907
혹가드(Hoggard)	영국 구세군	1908

② 선교 구역 분할

이와 같이 많은 교파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선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교지 분할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다음과 같이 선교지 분할안의 채택을 볼 수 있다. 인구가 5000명 이상의 도시에는 선교구역 분할 정책과 관계없이 공동선교구역으로 하였다.

미국 북장로회 :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미국 남장로회 : 충청도, 전라남도

호 주 장로회 : 부산, 경상남도

캐나다 장로회 : 함경도, 간도

미국 북감리회 : 평북(영변 박천) 평남(강서) 강원도, 충청남도

미국 남감리회 : 함경남도(원산), 황해도(해주), 경기도(인천)

13. 네비우스 선교방법(Nevius Methods of Mission)

한국 선교 사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교 정책의 원칙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당시 중국 지푸(芝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네비우스(John L. Nevius) 목사를 초빙하여 2주간 선교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채택한 것을 네비우스 선교방법(Nevius Methods Mission)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교사는 하나의 복음 전도의 순회전도자이다.
- ② 자립선교, 곧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서의 교사가 된다.
- ③ 자립정치,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봉급을 받지 않는 지도자 아래서 전도와 교회 경영을 한다.
- ④ 자립보급, 모든 교회 건물은 그 교회 교인들 만에 의해서 장만되고 교회가 조직되자마자 전도인의 봉급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 ⑤ 체계적인 성서 연구와 모든 활동에서의 성서의 중심성을 관철한다.
- ⑥ 성서의 교훈에 따라서 엄격한 생활 훈련과 치리를 한다.
- ⑦ 다른 교회나 기관과 협력과 일치의 노력을 계속하여 최소한도 다른 기관과는 지역을 피차 뜻에 맞게 분할하여 전도한다.
- ⑧ 지역과 프로그램의 분할 이후에는 피차 절대 간섭을 하지 않는다.
- ⑨ 그러나 경제나 그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넓게 피차 돕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자립교회를 지표로 삼은 것으로 자력전도 자체제도 자급운영으로 요약된다. 아무튼 이 방법이 초기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후 전국 각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주요 교회로는 새문안교회(1887), 인천 내리교회(1889), 의주교회(1889), 부산 초량교회(1892), 제물포교회(1893), 평양 장대현교회 등 교세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또한 축첩, 술, 담배, 도박을 교회에서 금지하자 이것은 일반사회에서도 환영받는 추세가 되어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새벽기도회,

철야기도, 회개통성기도 등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14. 선교공의회 및 독노회

① 선교공의회

우리나라 선교사역은 초창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의 침략이 점차 노골화되어 1904년 노일전쟁이 발발하고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국운이 기울자 망국의 한을 안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로 돌리게 되어 선교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그리하여 1900년 즉 알렌의사가 입국한 지 불과 16년 후에는 한국의 교세는 교회수 257처, 전도소 287처, 세례교인 수 7,69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런 추세의 결정적인 불길을 일으킨 것은 초기의 대부흥 운동이었다. 부흥운동의 시작은 1904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하기 사경회를 개최한 데서였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색이 되고 부흥사경회의 효시였다.

1893년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하던 각파 선교사들은 서로의 유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선교협의회(Council of Missions)를 조직하였다. 1900년 한국교회 최초로 장로 2인(서경조, 김중섭)이 탄생하였다. 1901년에는 선교사로만 조직되었던 선교사 공의회와 한국인 총대가 연합하여 장로회 공의회를 조직하였다. 제1회 장로회 공의회 회장에는 마포삼열 목사가 회장이 되고 서경조 장로가 서기로 되었다. 이 공의회는 독노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② 독노회 조직

드디어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당에서 선교사 33명, 한국인 장로 36명, 찬성회원 9명 등 78명이 모여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노회가 조직되었다. 초대 노회장에는 마펫 목사(Samuel Austin Moffett, 한국명 마포삼열, 1864. 1. 25~1939. 10. 24) 부노회장에는 방기창 목사가 선출되었



다. 제1회 독노회에서的重要 결의사항으로 첫째 장로회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의 채택이었다. 장로교 12신조로서 현재까지 각 장로 교단이 유지되고 있다. 둘째로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인 서경조, 이기 풍, 한석진, 길선주, 양진백, 송인서, 방기창 등 7명이 한국 최초로 목사로 안 수를 받았다. 셋째로는 선교사의 파송이다.

〈제1회 독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선교사명	파송지역	파송연도
이기풍	제주도	
최관흠	시베리아	1909
한석진	일본 도쿄	1909
김영제, 김진근	만주 간도	1910
방화중	미 캘리포니아, 멕시코	1910

〈한국 장로교회의 발전상〉

연 도	교회 수	개척교회 수	세례교인 수	학습교인 수	교인총수
1885		1	6		
1886		2	9		
1887		2	25		
1888	1	2	65		
1890	1	4	110		
1896	1	26	530		
1898	1	205	2,079	2,800	
1900	2	287	3,690	4,000	
1900	2	287	3,690	4,000	
1905	321	470	9,761	30,136	144,261
1912	1,438		53,008	26,400	127,228
1919	1,705	102			144,062
1925	2,277	300			194,408
1927	2,545	178			194,670

한편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된 이후 점점 부흥되어 산하에 7개 대리회(代理會, Sub-Presbytery)를 조직하여 치리케 하였다.

7개 대리회는 다음과 같다.

경충(京忠)대리회

평북(平北)대리회

평남(平南)대리회

황해(黃海)대리회

전라(全羅)대리회

경상(慶尙)대리회

함경(咸鏡)대리회

독노회는 1911년 대구제일교회에서 제5회로 모여 총회를 조직할 것에 몰두하여 1912년에 총회로 모이게 된다.

15. 총회 조직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감에 따라 독노회 시대는 불과 5년으로 끝나게 되고 드디어 총회가 창설되었다.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평안남도 평안, 경창, 문안 여자 성경학원에서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조선총회로 회집하여 먼저 개회예배로 독노회 회장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선교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장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마펫(Samuel A. Moffett, 馬布三悅) 선교사가 떡을,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선교사가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예식을 거행한 후 개회하였다. 출석인원은 목사 52명, 장로 125명, 선교사 44명 등 221명이었다.

1912년 9월 2일 평안신학교 강단에서 속회되어 총회장에 언더우드 목사, 부회장에 길선주 목사, 서기에 한석진 목사, 부서기에 김필수 목사, 회계에 방위량 선교사, 부회계에 김석창 목사를 각각 선출하였다. 이로서 역



사적인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당시의 교세는 교회수 2,054교회, 목사 128명, 장로 225명, 세례교인 53,008명, 교인총수 127,228명이었다.

총회의 첫 안건은 선교이었다.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1913년에 총회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등 3명의 선교사를 임지에 파송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왔다. 총회가 창설되자마자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이 되었다.

우리 경산교회는 1912년 이래 경상노회에 소속되어 오다 경상노회가 경북노회와 경남노회로 분리되면서 1916년 12월 27일 경북노회가 설립됨에 따라 경북노회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1962년 10월 22일 경청노회가 경북노회로부터 분리하여 창립됨에 따라 1964년 12월 4일 경청노회 제5회 제1차 임시회부터 경청노회 소속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제 2 장 경산교회 설립

제 1 장 경산의 역사 및 현황

제1절 경산의 역사 및 현황

경산교회 설립지인 경산의 역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각처에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유물인 석기 토기 등 유적을 보아 신석기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인간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대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일찍이 압량을 중심으로 압독국이라는 고대부족국가가 경산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압독국의 형성 시기는 기원전 1세기경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늦은 기원후 1세기 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신라에 의하여 정복된 시기에 관해서는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파사왕(婆娑王) 23년(102년)에 압독국 왕이 항복해 왔고 같은왕 27년(106년)에는 정월에 왕이 압독으로 행(幸)하여 빈궁한 백성들을 살피고 3월에 돌아왔다고 기록하면서 다른 곳에는 지미왕(112~134)때에 쳐서 빼앗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제6대 지마왕(祗摩王, 一作味)때에 압량국을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봐서 대체로 압독국은 2세기 초에 신라에게 일단 정복된 것으로 보이나, 신라의 압독국 정복은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압독국 정복의 기록이 한둘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압독국 토평을 위해 군사를 몇 번이나 일으켰다는 것이다.

내물왕(奈勿王, 356~401년) 이후 신라는 부족국가 단계에서 고대국가

로 발전한다. 압독은 신라의 한주로서 완전히 신라에 흡수되어 버린다. 선덕여왕 11년(642년)에는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軍主)가 되었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2년(655년)에는 장산성(獐山城)을 쌓았고景德왕(景德王, 742~765) 때에는 장산군(獐山郡)으로 고쳐 부르고 해안현(解顔縣, 대구시 동촌)과 자인현(慈仁縣)이 이에 속하였다.

고려 태조 23년(940년)에는 장산(獐山)의獐을章으로 고치고 현종 9년(1018년)에는 경주에 속하게 하고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한 1309년에는 경산(慶山)으로 고쳐 불렀다.

임진왜란 뒤 선조(宣祖) 34년(1601년) 경산은 대구에 예속되고 6년 뒤에는 다시 현으로 복귀되었다. 고종 32년(1895년)에 다시 군이 되었다가 1914년 3월 부군폐합때에 하양, 자인과 합하여 경산군이 되었다. 그 후 1956년 7월 경산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고 1981년 7월 11일 안심과 고산이 대구로 편입되고 1989년 경산읍이 시로 승격됨으로 경산시와 경산군이 분리되었다가 1996년 다시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폐합되어 오늘에 이른다!

제2절 교회가 설립되기 까지

1. 베어드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

장로교가 대구 경북에 전래된 것은 대구 및 경북지방에 선교의 초석을 놓은 베어드(William M. Baird) 목사가 대구 경북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옴으로 시작되었다.

베어드(Rev William M Baird, 배위량, 裴緯良)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그의 부인 애니 베어드와 함께 고종 27년(1890년)말에

1 경산군, 『경산군지』 1971, 경산시, 『경산시지』 1997.

내한하여 1891년 9월부터 부산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베어드 목사는 경북지방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전도여행 하였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선편으로 거슬러 올라가 1893년 4월 22일(토) 오후 1시경 대구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구제일교회는 이날을 설립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날을 대구제일교회 설립일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설도 있다. 대구에 도착한 후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별다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베어드(Baird of Korea)』의 저자인 리처드 베어드(Richard Baird)가 그의 아버지 베어드 선교사의 일기를 편집한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베어드 선교사는 1896년 4월에 부인(Annie L. Adams)과 아들(John)을 데리고 대구로 이사 왔으나, 그해 12월 서울지역 교육담당고문으로 임명되어 후임으로 처남인 아담스(Rev. James Edward Adams, 안의와, 安義窩)가 부임하게 된다.

2. 아담스 선교사 및 대구 제일교회 설립

베어드 선교사의 뒤를 이어 대구에 부임한 선교사는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 목사이다. 아담스 목사는 안의와(安義窩)목사로 대구 및 경북의 교회 개척자요 대구제일교회의 설립자이며 우리경산교회 제1대 당회장이기도하다.

아담스(Rev. James Edward Adams)목사는 1867년 5월 2일 인디애나 주 맥코이(McCoy)에서 출생하였다. 1888년 캔서스(Kansas)주 터피커(Topeka)의 워시번 대학(Washbon College)을 졸업하였다. 그 후 1년간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수학 하고 다시 시카고의 매코믹 신학교(McComick Theological Seminary)



아담스 목사



에 들어가 1894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목사안수를 받고 티피커 YWCA간사로 일하던 넬리 딕(Nellie Dick, 1866~1909)과 결혼 하였다. 그해 미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선교사로 임명받고 부산선교지부에 배속 받았다. 부산에는 아담스의 누나 앤니 로리 아담스(Annie Laurie Adams, 안애리 安愛理)와 자형인 베어드목사(Rev William M Baird)가 먼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1897년 11월 1일 부인 넬리 딕과 아들 에드워드(Edward Adams, 안두화), 그의 어학선생 겸 조사인 김재수(후일 김기원 목사), 그리고 출산을 앞둔 부인을 도와줄 임시 보모 마리 체이스양(Miss Marie Chase)을 데리고 대구에 왔다. 도착 즉시 예배를 드렸다고 대구 선교지부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로서 대구제일교회(남문안교회, 대구읍교회, 남성정교회 등으로 불림)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대구경북지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제일교회가 점점 부흥되어가는 가운데 고산지방에도 제일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늘어났다.

3. 사월교회

대구제일교회가 점점 부흥하던 중 고산면에서 대구제일교회까지 다니는 교인이 늘어났다. 교인 중에는 노약한 이가 많아서 당시 교통이 좋지 못하던 가운데 더구나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더욱 불편하여 1898년 겨울에 처음으로 당시 경산군 고산면 매호동 김근명씨 집에서 남녀교인 십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사월교회의 설립이었다. 이때가 1898년 겨울이었다. 이때를 사월교회가 영남내륙지방에서 제일교회 다음으로 교회설립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사월교회 100년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제3절 경산교회 설립

사월교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1909년 정식으로 교회를 설립 분립시킨 교회가 경산교회(당시 삼북교회)이다. 1928년에 발행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산군 삼북교회를 설립하다. 고산면 사월로부터 분립하니 조사 정재순(鄭在淳), 박승명(朴承明)과 영수 서재준(徐在俊)집사, 이종성(李鐘城)이 상계시무(相繼視務) 하니라.」(『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조선 예수교 장로회, 292)

한편 경산교회 당회록 제1호 첫머리 기록에 의하면,

「1909 경산군 경산면 삼북동 야소교회 약시라 삼북교회는 본시 사월교회 다니다가 1909년 세례인, 학습인, 속교인, 병하야 30녀인이 나와서 본 교회를 세우고 조사는 정재순, 영수는 서재준, 집사는 리경부, 제시오 선교사는 안목사 의와시오」

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사월교회 100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경산교회는 사월교회에도 무게 있게 충성한 김성률(金聖律)가정이 경산역전으로 사업관계로 이사하게 되어 엄상필(嚴相弼)가정 김윤서(金允瑞) 이종성 서재준 김성수(金聖守) 홍천여(洪千汝)등 3, 4명이 지역까지 분할하여 분립하게 되었다.」(『사월교회 100년사』사월교회, 174)

또한 『경북교회사』에 의하면,

「경산면 삼북교회 립(立)하다 고산면 사월교회로부터 분립하고 안의와 설립자로 서재준은 영수 이종성은 집사로 시무하고 조사는 정재순이 본 교회와 사월 전지 금곡 복사 합 5교회를 겸임하다」(『경북교회사(1894~ 1923)』 31)

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경산교회가 경산시(당시 면) 삼북동 80번지 현 위치에 설립하게 되었으니 1909년 봄이었다. 이날이야 말로 복음의 햇빛을 높이든 때이었다.

한편 경산교회 설립동기에 대해서는 경산에서 사월교회까지 다니는데,

먼 거리의 비포장도로에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흑한이나 흑서, 혹은 날씨가 좋지 못할 때에는 두꺼운 옛날 성경 찬송가와 성미를 들고 가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에 경산에서 사월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경산교회 설립이나 기도소 설립을 요청할 때 사월교회 당회원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하느냐 봄이 되어서 보자고 하면서 우선 기도소를 경산 사정동 어느 성도의 가정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어느 성도의 가정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성률 가정으로 추정된다. 김성률은 후일 경산교회 첫 장로로 취임하게 된다. 직업은 곡물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일 정미소를 경영하였다.

기도소에서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 또는 일기가 매우 불순할 때에는 주일밤 예배도 드렸으리라 짐작한다. 이 기도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또한 거리관계와 함께 경산은 같은 면이면서 경산군청 소재지로서 타면보다 인구가 많고 행정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 복음을 널리 전하려면 인구가 많은 경산에 교회를 세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구령운동의 열정과 아울러 이미 경산에 30여명의 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산교회를 설립하지 아니할 수 없던 이유인 것이었다.



설립당시의 경산교회당(1909~1917)

제4절 설립 년월일에 대한 고증

경산교회의 정확한 설립연월일에 대해서 설립연도는 1909년이 확실시 된다. 경산교회 제1호 당회록 첫머리에 1909년 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2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발행된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292면에 삼북교회(현재 경산교회)설립에 대한 기사 및 『사월교회 100년사』 174면에도 1909년에 경산교회(당시 삼북교회)가 분립되어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북교회사』²에도 1909년에 삼북교회가 사월교회로 부터 분립하여 설립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야소교 장로회 연감』에 의하면,

「대정(大正) 14년 3월 2일 창립」³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연호 대정 14년이면 1925년 인데 무슨 근거로 16년이나 늦은 1925년에 설립 되었다고 기록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대구 경북 교회역사 연구소장인 이재원 장로는 경산교회 설립연월일을 연도는 1909년으로 하고 날짜는 공식문헌의 기록대로 3월 2일로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로서 경산교회 설립연도가 1909년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설립월일은 『조선야소교 장로회 사기』외에는 기록한 날짜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사월교회 100년사를 집필한 정원영 장로는 선대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여러 교회가 분립하는데 있어서 전교회가 봄에 분립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중 경산교회 설립월일이 4월 15일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학생시절부터 경산교회 설립일이 4월 15일이라고 듣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2 박덕일, 박문영, 『慶北教會史 (1894~1923)』 31.

3 조선 예수교 장로회, 『야소교 장로회 연감』 1940, 412.

4 慶淸老會錄 편찬위원회, 『慶淸老會錄』 제일인쇄사, 1987, 678.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칭노회록⁴에 경산교회 창립이 1909년 4월 15일로 기록되어 있다. 경산교회 당회록 제1호 첫머리 교회약사 첫면 밑란에 4. 15로 첨부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보건데 경산교회 설립연월일을 주후 1909년 4월 15일로 결론짓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교회 당회록 2호 61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교회 연혁을 상고한 결과 매년 9월 16일이 예배당 가옥을 매입하여 처음으로 성회를 거행하는 날이 오매 당회에서 결의하여 경산교회 창립기념일로 결정한다.…」

참고로 당시 당회장은 이명석 목사이며 기록연도는 1944년이다. 교회설립은 1909년 4월 15일에 하고 은혜롭게 지내는 중 예배당 가옥을 구입하여 첫 성회를 개최한 이날을 교회창립 기념일로 한다고 되어있다. 당회록 제1호 첫머리에 있는 약사에는 1917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1918년 4월 5일~13일 사경회가 열렸다고 기록되어있어 집회 개최 날짜가 틀리고 가옥 매입과 예배당 건축으로 되어 있으니 두 기록은 별도의 기록이 확실하다. 아무튼 교회설립일은 4월 15일이고 설립기념일이 9월 16일로 되어있어 혼돈스럽기도 하다.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령으로 달려갈 100년

제2편 교회의 초창기

제 1 장 초창기의 교회

제1절 삼북교회(1909)와 선교사 목회

제2절 계동학교 경영

제 2 장 김병농목사 부임

제1절 김병농목사 목회(1915 봄~1916. 3)

제2절 그 당시의 이모저모

제 2 편 교회의 초창기

제 1 장 초창기의 교회

제1절 삼북교회(1909)와 선교사 목회

아담스(안익와 목사) 선교사는 대구경북지방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경산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선교사이다. 경산교회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문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초기의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들에 공통적으로 수행한 사역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교회를 순회 지도하며 말씀선포, 성례예식, 집례 등 경산교회 당회장으로 한국인 목사가 부임 할 때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재순 조사

정재순 조사(助事)는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선교사를 도우며 담임 교역자로 수고하였다.

1912년에는 박덕일 조사가 1913년까지 협조하였다. 1913년부터 1915년 봄까지 박승명 조사가 동역 협조하며 서재준 영수가 교회행정 및 제반사항을 조사와 함께 협의하면서 통활 하였으리라 짐작한다.

집사로는 이종성 그 외 주요인원으로서 김성률, 엄상필, 김윤서, 김성수, 홍천여 등으로 약 30명이 모여서 삼북교회 첫 예배를 드렸다. 당시의 교회재정관계상 정재순 조사는 본교회 외 4처 교회를 겸하여 봉직하였다고 『경북노회사』 31면에 기록하고 있다.

제2절 계동(啓東)학교 경영

계동학교는 아담스(안의와 목사) 선교사의 교육선교 사업으로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세워진 경상북도의 38개의 학교 중 하나로 사월교회내에 세워졌다. 안의와 선교사는 그 당시로는 거금인 400원씩을 지원했다.

재래의 교육기관인 서당(書堂)보다 새 시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고 교육선교의 일환으로 세워진 것으로 당시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 명칭에 대해서 대구에 계성학교가 있고 그 동쪽인 사월에 계동학교를 설립한다하여 학교이름을 ‘동쪽에 연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사월교회 100년사』 162면에 기록하고 있다. 경산교회 초창기 조사로 수고한 정재순, 김성률(후에 경산교회 초대장로)도 계동학교에서 공부했다. 그 후 계동학교는 공립학교가 면마다 서게 되고 일제의 방해가 잇따르자 쇠퇴하게 되어 사월교회에서는 인구가 많고 경산군청 소재지에 있는 경산교회로 학교 비품과 함께 이관함에 따라 경산교회가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인수 받을 때에는 경산교회구내(경산시 삼북동 80번지)에 있었으나 그 후에 더 발전하여 중방동으로 옮겨졌다. 규모는 약 20평의 교실로 학생 수는 약 30명 정도였고 수업료는 월 50전 이었다. 15세 되는 학생도 있었고 학제는 4년제였다.

교사로는 사월교회 문사인 장로(1912. 2. 7 장립), 반야월에 사는 송원재(후에 장로, 의사)가 1921년부터 2년간 봉직하였고⁵ 김기양 교장⁶, 김명집(초대장로 김성률의 아들, 후에 목사), 정낙영(휘문학당 졸업)등이 있었다.⁷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 그 이상 알길이 없다. 이때 담임목사는 아담스 선교사로부터 김용규 목사에 이른다. 경산교회 설립 후 첫 사회봉사 및 교

5 반야월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반야월 교회 70년사』 동신인쇄소, 1975, 36.

6 경산교회 당회, “제38회 당회록”(1926. 11. 28).

7 정낙연의 아들 정인득(1928년생)이 2004년에 증언.



육 사업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 후 공립학교의 발전과 일제의 방해로 문을 닫게 되었다. 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아쉽다. 다만 제38회 당회록(1926 11. 28)에 계동학교 기사로 보아서 1926년까지는 존속된 듯하다. 결국 개교 16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 교육탄압으로 폐교되었다. 한편 마지막 교장이 김기양씨 임은 확실한 듯하고 아울러 삼북동 교회 내에서 경영하다가 중방동으로 옮긴 시기가 1922년인 듯하다. 비어있는 계동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유치원을 경영하였으리라 짐작된다.⁸

8 경산교회 당회, “제23회 당회록”(1923. 1. 8). 경산교회 제직회, “제3회 제직회록”(1933. 3. 12), 경산교회 제직회, “제3회 임시회록”(1933. 5. 31), 경산교회 제직회, “제6회 제직회록”(1933. 6. 4).

제 2 장 첫 한국인 김병농 목사 부임

제1절 김병농 목사 목회(1915 봄~1916. 3)

사월교회에서 분립 설립된 경산교회는 그동안 아담스(안의와 목사) 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재임하여 그 지도와 후원을 받아왔다. 1915년 봄에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가 부임하여 왔으니 그가 바로 김병농(金炳農) 목사이다. 김병농 목사는 한국인으로서 경산교회 초대목사이다. 김병농 목사는 1915년



김병농 목사

7월 17일 사월교회에서 위임식을 갖고 당시의 형편에 의하여 지산, 사월, 경산, 사방산 네 교회를 함께 시무하였다. 네 교회에서 매월 20원의 사례비를 드리고 공동으로 청빙하였던 것이다.

김병농 목사는 1912년 평양신학교 제5회 졸업생으로 전라노회 소속으로 있는 전주 서문교회(1893년 설립)에서 경상노회로 이명하여 왔다.⁹ 『사월교회 100년사』 181면에 의하면 김병농 목사는 1915년 5월 23일 사월교회에 부임하여 1916년 3월 19일까지 시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경산교회 시무기간도 이와 비슷하리라 본다. 경산교회 제1호 당회록 첫머리에 있는 약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15년 춘(春)에 목사 김병농씨께서 사월 지산 사방산 경산을 삼북동 4처 교회에서 월급은 매삭 20원으로 정하고 1년 동안 시무하시는 중 매우 재미 많이 보고 교인수는 대략 70여명이오며 세례인 32인 학습인 18인 속교인 20명 가량이 오며 홀지에 김병농 목사께서 고향 의주 찰년관 교회로 전임하여 가시고…」

곧 김병농 목사는 약 1년이 못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경산교회 첫 한국인

⁹ 경상노회, “제10회 경상노회록”.



목사로서 의의가 매우 크다. ‘매우 재미 많이 보고’란 교회의 은혜로운 모습
을 짐작할 수 있다. 1916년 3월에 사임하고 고향인 함경도 철산군 의주
찰년관 교회로 갔다. 그 후 김병농 목사는 만주 안동현 교회에서 목회하였
고 함태영, 이승훈, 이명용 등과 절친한 사이로 3. 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
며 1922년 장로교 총회에서 남만주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제2절 그 당시의 이모저모

1. 포장

그 당시 교회당은 T자 형태의 예배당을 짓거나 예배당 중간에 포장을 쳤
다. 이것은 ‘남녀 칠세 부동석’의 당시 한국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야했던 사정이었기 때문이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만이 양
쪽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뿐 양쪽에서는 반대편 좌석이 보이지
않게 되어있었다. 출입문도 남녀 별도로 있었다. 강단을 향하여 왼쪽에 여
반이, 오른쪽에 남반이 있었다. 이것이 1914년 무렵부터 서울근방에서부
터 서서히 사라져갔다. 경산교회에서는 배경학 장로(1920. 2. 23일생)의
증언에 따르면 1929년까지 포장이 설치되어있었다고 한다. 한시영 장로
(경산교회 초기의 한명수 장로 2남, 1927년생)는 겨우 걸음마할 때 포장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2. 치네

이무렵 여인들은 내용을 하기위하여 얼굴을 가리는 두루마기 같은 형태
의 치네를 사용하여 순결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선교사가 들
어오고 따라서 서양문물이 들어와 기독교인들이 먼저 구습을 버리고 새 시
대에 앞장서게 되었다.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령으로 달려갈 100년

제3편 교회 확립기

제 1 장 서성오목사 목회

제1절 교회의 내실 확립

제2절 당회 조직

제3절 3.1운동과 경산 및 경산교회

제 2 장 염봉남목사 목회와 세 분 목사의 단기목회

제1절 경산교회 첫 위임목사

제2절 염봉남목사 목회

제3절 세 분 목사의 단기목회

제 3 편 교회 확립기

제 1 장 서성오 목사 목회

제1절 교회의 내실 확립



서성오 목사

1916년 5월 김병농 목사 후임으로 서성오 목사가 경주로부터 초빙되어 안의와 선교사, 김병농 목사에 이어 경산교회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제1호 당회록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16년 5월에 경주 서성오 목사를 청빙하여 사들(사월), 신기(반야월), 압량, 경산 삼북동 4처 교회에서 월급은 18원으로 정하고 시무하는 중 동년학교를 위하여 자

본 600원 세우고 남녀교사를 교빙하여 남교사 12원 여교사 10원으로 재미있게 나가며 1917년에 비로소 교인들이 열심히 연보하여 예배당을 건축하여 반량체 12칸 관참게 건축하였사오며 여러 형제자매들이 극역 주선하여 형제자매도 도와 주시사 900원 가량 드러시되 빛없이 되었아오니 감사하오며 세례인 70여명 학습인 30여인 속교인 병 130여인이 매주일 출석하오며 1918년 4월 5일로 13일 까지 김성로 목사를 청빙하여 사경회 한 결과로 신기, 압량, 사들 3처 교회에서 김기원 목사를 교빙하여 월 20원으로 정하여 시무하오며 경산읍 삼북동 교회에는 서성오 목사를 독 목사로 월급은 20원으로 정하여 보오며…」

이상의 약사를 통해서 살펴보건데 서성오 목사 목회시기는 실로 경산교회의 일대 발전기요, 확립기이었다.

서성오 목사는 경주로부터 청빙되어 사월, 신기, 압량교회와 함께 15원의

10 사월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182.

사례비를 받고 시무하였다. 1916년 7월 4일 사월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하여¹⁰ 사월교회 위임목사가 되었고, 경산교회 담임목사로도 시무하였다.

서성오 목사는 부임하여 계동학교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자본 600원을 세우며 남녀교사를 초빙하고 대우를 증액하여 분위기를 일신함으로 매우 발전하여 나갔다.

또한, 예배당을 당시로서는 크게 건축하였다. 크기가 반량체 12칸으로 잘 지었으며 건축비가 900원 정도이며 우리교인은 물론 인근교회에서도 힘써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세례교인 70여명, 학습교인 30여명 외 신도 등 130여명이 매주일 출석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나갔다.

한편, 1918년 4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강사로 김성로 목사를 초청하여 신축된 교회당에서 사경회를 개최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 사경회를 계기로 하여 서성오 목사를 경산교회 단독목사로 월 20원 사례하여 청빙케 된 것이다. 그리고 서성오 목사가 함께 목회하던 신기(반야월), 압량, 사들(사월) 3처 교회는 김기원 목사를 월 20원 사례하여 공동으로 초빙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산교회가 설립된 지 만 8년 만에 단독으로 목사를 청빙하게 됨과 동시에 단독으로 3개처 교회가 합해서 사례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목회자를 대접했으니 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내실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이 고장에 든든히 서게 된 것이다.

제2절 당회의 조직

경산교회가 설립(1909)된 후 1918년 까지는 장로가 없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경산교회의 첫 장로로 김성률이 취임하게 된다. 제1호 당회록 첫 머리에 있는 ‘약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17년 6월 노회에 허락으로 인하여 김성률씨가 투표되어 문답을 마치고 1918년 8월 4일 주일에 김성률씨를 장로 예식할새 안의와 선교사와 김기원, 서성오 목사와 장로 김경배제씨가 모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삼가 하나님 교회를 먹이라하는 문제로 권면하시고 김기원 목사께서 히브리 13장 17절 보시고 인도자를 순복하라는 문제로 형제자매에게 권면하시고 장로를 도와주라하고 안목사의 와씨의 축복으로 폐회하다」

상기와 같이 1918년 8월 4일 주일 경산교회 최초장로가 탄생된 것이다. 제4회 경북노회속회(1918. 6. 18 오후8시)에서 허락받고 8월 4일 주일에 장립식을 가졌다. 드디어 1918년 8월 18일 오전 9시에 예배당 구내에 있는 학교에서 제1회 당회가 열렸다. 학교라 함은 계동학교를 말한다. 회장 서성오 목사, 서기 김성률 장로로 되어 있으니 당회원 전원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조직된 당회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주력하였다.

첫 당회에서 먼저 회장이 기도 후 성경 로마서 8장 3절후 몇절 봉독한 후 말씀을 전하고 학습교인 3명, 세례교인 3명을 문답하였다. 동시에 학습교인 3명이 4계명을 범함으로 학습교인 됨을 취소함을 볼 수 있다. 경산교회 당회는 첫 당회 때부터 주일성수를 위반할 시는 가차 없이 임하여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건덕에 힘썼다. 이로서 교회는 초창기를 지나 확립기로 접어든다.

1918년 9월 7일 6시에 개최된 제2회 당회록에 의하면,

「...8일에 제직회 하여...」

라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이 기록상으로는 경산교회의 첫 제직회이다. 경산교회가 사월교회에서 분립될 때 교회직분은 상계시무 하였다고 하니 교회운영상 제직회를 조직운영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아쉬운 것은 초대장로 김성률 장로는 사정에 의하여 1920년 10월 17일에 사임하게 된다.

11 경북노회 제7회 정기회록(1920. 1. 21) 계속회록(1920.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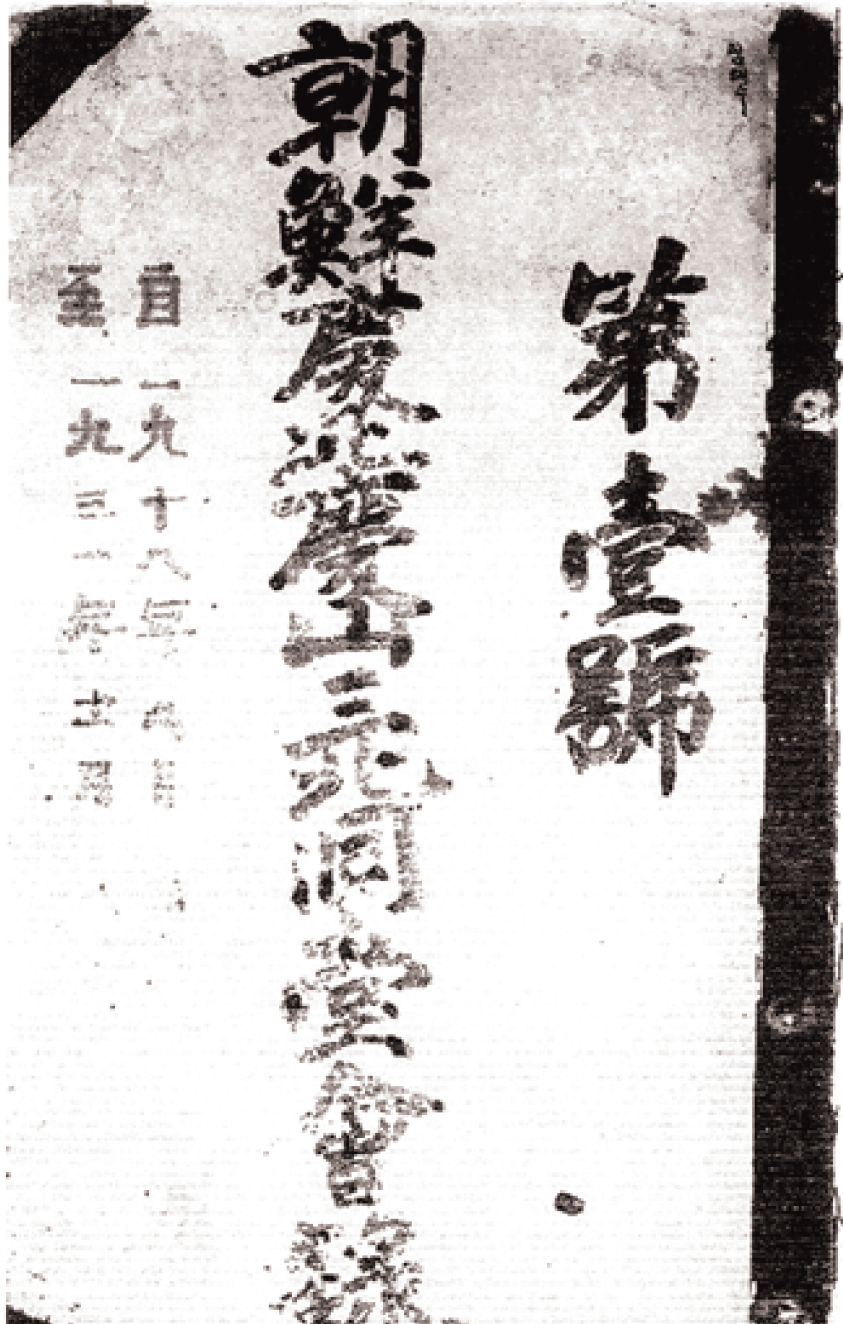
한편, 이 무렵부터 교회명칭이 삼북교회에서 경산읍교회로 변경되었다. 설립당시부터 교회가 위치한 동의 이름을 따라 경산면내의 유일한 교회로서 1920년 1월부터 경산읍교회로 부르게 되었다.¹¹ 당시 군내는 읍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경산면은 군청소재지로서 민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읍으로 불리어 군청소재지의 면을 타면과 구분하였다.

또한, 3.1운동 다음해인 1920년에는 경산교회 두 번째 장로가 세워진다. 1920년 7월 25일에 계동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당회록에 의하면 김성열 장로장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택함을 입은 김성열씨를 안동노회 허락한대로 장립예식 하기로 가결하고 정재순 목사께서 새로 장립할 장로와 교인에게 약조하기로 하고 서성오 목사는 신임 장로와 교인에게 권면하기로 가결하고...」

1920년 10월 17일 개최한 제7회 당회는 김성열 장로 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고 기록되어있고 회장 서성오 목사, 서기 김성열로 기록되어 있어서 1920년 7월 26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장립식이 개최된 것으로 짐작한다. 안동노회에서 장로 시취문답만 했는지 장립식까지 마치고 경산교회로 와서 취임식을 거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 안동노회가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경산교회에서 두 번째 장로가 탄생한 것만은 분명하다. 김성열 장로는 1924년 6월 30일 사임한다.

여기 경산교회 제1호 당회록 표지 및 약사 그리고 제1회 당회록을 원문 그대로 첨부한다.





慶山郡美山面三北洞卽蘇教會略史라
 三北洞教會는本시沙月교회로만이다라一千九百九年
 創設人韓谷人壽且人명玄야三十餘人이나外外本교회
 를創設우고초는정지순형우는외전준집은는외형부
 려외오 尙日는안목은의외외오一千九百十一年에漢字
 校도沙月外本教會內로호용하고一千九百十三年에는
 本本박덕일외지거단외오며且人명우는은十餘人이라
 且一千九百十三年至一千九百十五年春에까지本會명호는
 가단이며형우감형은외전부신외전외오집은는
 영상될감형우감은외제서라一千九百十五年春에

4. 176



月	日	목수김병복씨외서사월 지산사방산경산읍
		삼부동회회기에서월 초은익속 眞檢月
		으로형호고一年동안사무 고는충성범우지미만이
		보고고인우는매각七十여년이오며제례인三禮를학
		습人大人 되고人 주자간양의오며훈치에김병복
		복고씨외회향의유찰년간회회로원김후배가
		시고一千九百十六年五月에慶州府청오목수김을형병
		후배수들신기아양정산삼부동회회시에서月
		초은眞檢으로형호고사무고노중동년학고
		를위후배不本元首內간장회우고남너고수를고



시무 후로써 영산읍삼부동 교회가 늘려져 오
 례나를 두루 두루 영산읍삼부동 을 형성하여
 1910년 6월 5일에 개척을 하였으며
 개척을 치수 후로써 문답을 먼저 하고 1910년 10월
 4일에 개척을 하여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개척을 치수 후로써



를 또 아 주 라 고 고 안 목 사 의 외 외 외 복 복 으 로
의 회 하 다

120

一九百十八年八月十日 上午九時에 본당 회당에
 北^上廣^至處^至洞禮拜堂學校堂에서 會集^會은
 會長^森藤座^座은 在會長引道寺^寺는 祈禱^禱은
 聖經^經은 다 하^하고 讀^讀은 在說明^明은 다
 其在問答^問은 中^中學習人三人 禮^下洗問答三人
 이 問答^答을 覽^覽은 在 若^若簿錄^簿川入丹^丹은 可
 可^可決^決은 在 前^前學習人三人 이 中^中議^議命^命은 在 範^範是
 正^正是 在 範^範是 可^可決^決은 다 時^時은 同^同의 滿^滿은 在 會^會
 會長 徐聖五
 書記 金成律

제3절 3. 1운동과 경산 및 경산교회

일본의 강압으로 국권을 잃은 우리나라는 자유 없는 백성이 되었다. 나라를 잃은 지 9년만인 1919년에 3. 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민족사에 있어서 찬란한 역사의 날이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도 영광의 기록이다. 한국교회가 이 역사적인 민족거사에 동참하고 이 거사를 주도했던 것이다.

3. 1운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종전되고 1919년 1월 프랑스 수도 파리의 베르사유 궁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연합군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였다. 강화조약의 기본조건으로 14개 조항의 원칙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민족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민족도 이에 자극을 받아 독립을 바라는 기운이 더욱 높아졌다. 직접적으로는 1919년 1월에 고종(高宗)황제가 서거하고, 일본인의 독살설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 백성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더하게 했던 것이다. 고종황제의 국장이 3월 3일로 결정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으로 예측하고 3월 1일 정오를 기해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민족대표 33명중 기독교 측에서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이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문서의 전달, 연락 등 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피해 또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제암리 학살사건은 가장 비극적 사건이었다.

서울의 3. 1운동의 열기가 대구경북지역에도 일어났다. 대구에서는 1919년 3월 8일에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경북의 각 지방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경산지방은 경북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3. 1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대구의 1차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3월 7일 경산 중방동 전덕수(全德洙, 계성학교 졸업생)는 삼북교회(현재 경산교회) 서성오 목사와 함께 모교인 계성학교 최상원(崔相元)을 찾아갔다. 최상원은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를 주면서 경산에서 시위를 하도록 권고했다. 전덕수는 서성오 목사와 거사를 논의 했다. 또한 경산교회 최재학(후에 장로)은 이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리하여 경산 장날인 3월 11일로 거사일을 정하고 동참자의 포섭에 나섰다. 전덕수는 매부인 김상훈(청도군 동창면 주재소 순사보 : 경찰보조역할)에게 동참을 권유했다. 그리고 10일에는 삼북동 방한규(方漢奎)의 한약방에 들렀다가 김자숙(金子淑)을 만나 전국의 의거상황을 설명하며 참가를 권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누설되어서 얼마 뒤 전덕수는 경찰에 체포당했다. 이로 인해 경산에서의 만세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산출신의 인물들이 다른 지방에서 활약한 경우는 많이 있으나 생략한다.

3. 1운동의 결과는 특히 교회의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비록 독립은 이루지 못하여 외견상 실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우리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교회의 민족에 대한 역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민족의 단결과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나타내게 되었다. 둘째, 이 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하였다.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취임 하였다. 셋째, 일반대중의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민족과 교회의 관계가 신뢰와 애국의 종교로 보는 것이다. 넷째, 무단정치가 문화정치로 바뀌었다. 헌병제가 경찰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식민정치를 더 강하게 하여 우리민족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산교회는 평온을 유지하면서 내적영성운동에 더욱 힘썼다. 3. 1운동 후인 경북노회 제8회 정기회(1920. 6. 11)에 의하면 ‘감사할 것’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본지방내 부흥회를 하는 중 경산읍교회에서는 4월 15일부터 김익두 목사를 청하여 한주일 동안 부흥함으로 신자의 신령한 마음이 증가하며 새로 믿기로 작정한 이가 40명이요 낙심하였던 이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고 학교가 크게 확장 하오며…」

어려운 박해 가운데도 꾸준히 영적 실력향상에 매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중에서도 나라의 형편이 살기가 어려워 1920년 1월 21일 개최된 제7회 경북노회록에,

「...북간도로 이사하여 간 이도 적지 아니하오며…」

리는 짧은 글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경산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김익두 목사를 강사로 청하여 1924년 가을에 일주일간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심령부흥과 더불어 3.1운동 이후의 어려운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김익두 목사는 1910년 평양신학교 제3회 졸업생으로 목사가 되어 기도와 믿음의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받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한국교회사에서 위대한 부흥목사가 경산교회에 두 번이나 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가슴 뿌듯함과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하다.



제 2 장 염봉남 목사 목회와 세 분 목사의 단기목회

제1절 경산교회 첫 위임목사

3. 1운동후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실을 다지면서 더욱이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가운데 서성오 목사는 사임을 하였다.

제9회 경북노회록(1921. 1. 13 계속회)에서,

「...서성오 목사 사임 받기로...」

로 되어있다. 후임으로 경산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제1대 위임목사로 염봉남 목사가 부임하였다. 제9회 경북노회록(1921. 1. 13 계속회)에 의하면,

「...경산읍교회에서 염봉남 목사를 월봉 50원에 전임목사로 청빙하는 일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하였아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1921년 1월 24일 오후 1시에 개최한 제9회 당회록에 의하면 당회장 염봉남 목사, 서기 김성열 장로로 되어있어 경산교회 부임은 1921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 사이에 부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경산교회 제9회 당회록(1921. 1. 24)에 의하면 염봉남 목사 위임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노회 명령으로 대구 동산 부해리씨 목사와 남산 방영조 목사께서 본 교회에 왕림하사 염봉남씨 목사위임예식... 성대히 거행하다.」

이로 보건데 경산교회 설립 후 첫 목사 위임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처음으로 위임목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위임일시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으나 1월 23일로 짐작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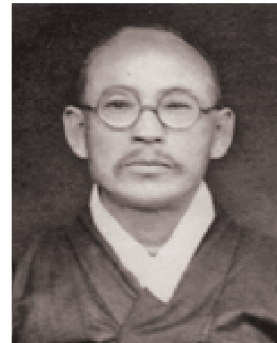
제2절 염봉남목사 목회

염봉남 목사는 1921년 5월 1일 부터는 사월교회도 함께 시무했다.¹² 사택은 교회근처에 두었다. 이때까지 주일 낮 예배를 오후에 드리고 오전에는 성경공부에 힘썼다. 이것은 단독목회가 아니어서 이웃교회와 함께 사역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성오 목사 목회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나 1921년 3월 26일에 개최한 제11회 당회의 결의에 의하면 예배시간변경과 주일오전에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오전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사월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다.¹³



염봉남 목사

염봉남 목사 목회시에 경산교회 설립 후 세 번째로 장로장립이 이루어졌다. 1921년 1월 24일에 개최된 제9회 당회록에 의하면 엄상필 장로 장립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엄상필 장로

「노회 명령으로 대구 동산 부해리씨 목사와 남산 방영조 목사께서 본 교회에 왕림하사 염봉남씨 목사위임예식과 본 교회 엄상필씨로 장로 장립예식을 성대히 거행하다.」

당회개최장소가 ‘엄상필 장로택에 회집하여’ 라고 되어있으니 새로 장로된 택으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그 장소에서 개최된 듯하다. 장립일자 는 기록되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초창기에는 장립 받은 장로택에서 당회가 많이 열렸다. 그 당시 장로가 경산에서 경제적으로 부한 편이었고 교회시설은 부족했을 듯하다.

12 사월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04.

13 경산교회 당회, “제11회 당회록”(1921. 3. 26), 사월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04.



또한 이 무렵에 경산역부근의 교인들이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일 저녁예배를 따로 모이기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그곳 형편과 집회성공에 대한 검토와 집회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는지 세밀히 조사한 후에 허락하기로 결의함을 볼 수 있다. 별도집회에 대한 당회 허락여부의 기록을 볼 수 없으나 교회의 왕성한 집회열 및 교회발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21년 3월 26일 개최한 제11회 당회록을 보면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하였는데 학습교인 가운데 ‘정낙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한다. 정낙영은 계동학교 교사이다.

또한 1921년 8월 11일에 개최된 제14회 당회록에 의하면,
「...각 권찰 정간을 상고하여 학습문답 하기를 동의 가결하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권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찰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무렵, 즉 1922년 5월 4일에 개최한 제19회 당회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유아세례를 베풀기로 하고 네 명의 어린이의 명단이 나온다. 교회가 설립된 지 12년만의 일이다. 1924년 1월 13일에 개최한 제25회 당회에서도 3명의 어린이 이름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는 지금까지 생존자도 있다.(2008. 10. 1 현재)

한편 사회가 불안한 시대에 이단도 횡행하였다. 1922년 2월 8일 개최된 17회 당회록에 의하면

「근래 각처 전도대와 또 강연이 유행하는 중 교리와 신경(信經)에 불합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일반교인에 독해가 됨을 인하여 일후로는 본 당회가 강사의 신앙상을 자세히 조사 후 허락하기를 동의가결하다.」

당회가 3. 1운동 후 어지러운 나라형편 중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모습이다.

제3절 세분목사의 단기목회

서성오 목사는 앞서 경산교회의 2번째 임시목사로 부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거니와 다시 제2대 위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제22회 계속당회 (1923. 1. 6)에서 청빙키로 하고 공동의회를 거친 뒤 1923년 1월 7일(주일) 오후 2시에 남녀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성오 목사 위임식과 김윤서 장로 장립식을 함께 거행하였다.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그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찬	송	6장
기	도	엄상필 장로
성	경	요한복음 21장 15~17
연	보	
기	도	김성열 장로
광	고	
찬	송	23장
강	도	요한복음 21장 15~17
취	지	김병호 목사
목사에 대한 서약문답	(정치문답조례 585문)	김병호 목사
교인에 대한 서약문답	(정치문답조례 586문)	김병호 목사
피택장로에 대한 서약문답	(정치문답조례 476문)	김병호 목사
기	도	김내은 장로
교인에 대한 문답		김병호 목사
안 수 례		목사와 장로들
장립과 위임됨을 공포		



목사에 대한 권면	김병호 목사
장로에 대한 권면	김내은 장로
교회에 대한 권면	김병호 목사
찬 송	30장
축 복	서성오 목사
교인일동 악수례	

대구시 7성전 교인대표 리영수 장신씨 집사 2인과 본교인 일동 이더라」



김윤서 장로

서성오 목사 위임식과 김윤서 장로 장립식이 거행됨으로 경산교회 제2대 위임목사와 네 번째 장로가 되었다. 김윤서 장로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다가 1928년 4월 1일 5년 3개월 가까이 시무하고 사임하였다. 이리하여 서성오 목사 2차 목회시대가 열렸다. 위임식을 마치자 1923년 1월 당회를 열어 교회에 부속한 학교재정이 어려워 경찰서에 기

부금 청구를 허락받기로 결의한 점을 보아서 당시 교회재정이 어렵고 사회경제도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계동학교는 교회구내에서 중방동으로 옮겨가고 남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유치원을 개설할 것을 결의하였다.¹⁴ 계동학교는 그 후 일제의 탄압과 공립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의 확장 및 발전으로 1926년경 폐지되었다. 교회구내에 남은 시설을 이용하여 유치원 개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당시에 이미 유아교육에 착안했다는 점은 높이평가할 일이다.

서성오 목사는 위임목사로 부임하였으나 6개월도 못되어 떠나게 된다. 그

14 경산교회 당회, “제23회 당회록” (1923. 1. 8).

동안 당회는 한번밖에 열리지 못했다. 1923년 6월 14일 개최된 경북노회 제14회 계속회에서 ‘서성오 목사 사면은 반기로 하였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다. 5개월 7일 재임이다.

서성오목사의 2차 목회가 끝나자 이어서 김영옥 목사가 1923년 6월에 임시목사로 부임하였다. 사월교회 위임목사로 있으면서 겸무하였다. 1923년 6월 14일에 개최한 제14회 경북노회 계속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산읍교회가 김영옥 목사로 당회장을 청원한 일은 허락으로 가결하다.」



김영옥 목사

김영옥 목사가 임시목사로 취임한 다음 달 이종성이 장로로 안수 받는다. 1923년 7월 15일 주일에 거행하였다. 이종성 장로의 장립에 대한 다른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종성 장로는 1909년 봄에 사월교회에서 분립되어 나올 때 함께 나온 초창기 설립의 한구성원이다. 장립식 다음에 열린 제 25회 당회(1924. 1. 13)에 서기로 수고한다. 경산



이종성 장로

교회에서 약 30년 동안 장로로 시무하면서 당회서기로 약 9년 4개월 가까이 수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부분에 걸쳐 충성봉사 하다가 1955년 대구 대봉교회로 이명 가서 후일 대봉교회 장로로 취임하게 된다. 이로서 경산교회 다섯 번째 장로장립이다. 그러나 두 장로가 이미 사임하고 세분의 장로만이 시무하게 된다. 또한 이 무렵에 경산교회 최초로 집사장립식이 있었다. 당시는 집사장립도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지 1924년 1월 10일에 개최된 임사부장 염봉남 목사 보고 채용에 대해 제15회 경북노회 계속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산읍교회와 사월교회에서 장립집사 1인씩 택함 허락 달라는 것은 허락하기로 하였아오며…」

이로서 경산교회 제26회 당회(1924. 2. 3)에서 결의하기를 2월 셋째 주일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넷째 주일에 장립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는데 당회록 부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록 ; 1924년 2월 24일 하오 2시에 본당회가(예배회로) 예배당에 회집하여 목사 김영옥씨 사회로 찬송 6장 합창 후 김성열 장로의 기도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까지 낭독한 후 집사된 자격이란 문제로 목사 김영옥씨가 강도한 후 집사 김성원씨를 대하여 권면하고 교회를 대하여 권면한 후 당회가 안수함으로 김성원씨로 집사장립하다. 찬송 3장 합창 후 목사축도로 폐회하다.

서기 이종성」

이로서 김성원 집사는 경산교회 첫 장립집사가 되었다. 김성원 집사는 1930년 10월 30일까지 시무하였다. 김영옥 목사는 약 1년 6개월 사이 장로와 집사 각 1명씩 세우고 당회를 9회 열었으며 통상적인 목회 학습, 세례, 성례식 등을 수행하였다. 경북노회 제17회 계속회(1925. 1. 8)에 보면 1925년 1월 8일까지 시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어 1925년 6월에 염봉남 목사가 임시목사로 재 부임한다. 제18회 경북노회 계속회(1925. 6. 12) 회의록에 의하면 압량교회와 함께 임시목사(당회장)로 시무한다. 염봉남 목사는 1925년 12월에 사임한다.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심으로 달려갈 100년

제4편 수난기

제 1 장 김용규목사 목회

- 제1절 김용규목사 이력을 통해본 시대상
- 제2절 김용규목사 목회
- 제3절 라이운동사 목회

제 2 장 한국교회와 일제탄압

- 제1절 신사참배와 교회의 시련
- 제2절 제4계명의 침범
- 제3절 일제의 교회탄압
- 제4절 새교단의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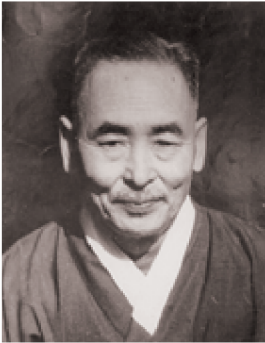
제 3 장 수난기의 경산교회

- 제1절 운영문목사 목회
- 제2절 제직회 조직
- 제3절 양재엽목사 목회
- 제4절 이상업목사 목회
- 제5절 이명석목사 목회

제 4 편 수난기

제 1 장 김용규목사 목회

제1절 김용규목사 이력을 통해본 시대상



김용규 목사

김용규 목사는 1894년 1월 24일 경산군 남산면 반곡동에서 김응두의 독자로 출생했다. 대구계성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믿음과 조국광복을 위해 몸 바쳤다. 계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소덕소학교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김용규 목사는 그 후 김성률 장로의 딸인 김순학과 결혼 하였다.

김성률은 경산교회 초대장로이다. 김용규 목사는 1918년에는 대영성서공회 권서로 임명받고 방혜법(Herbert E. Blair)목사의 휘하에서 1920년까지 활동했다. 그가 권서로 활동하는 동안 국민회 비밀조직을 피했으나 사전 발각되어 부친과 경산교회 조사였던 박승명(朴承明)과 함께 체포되어 고초를 당했다. 상해임시정부 자금모금 경상북도 책임자인 이종석과 함께 모금책으로 활동하여 2천1백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일이 탄로나 경주군 산내(山內)로 도피하여 화를 면했다. 그 후 기독교 항일조직인 경지사(經志社)에 입사하여 흥사단과 제휴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런 중에 동지인 정인과(鄭仁果)가 피검되었고 그가 미국으로 떠나게 되자 독립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런 현실은 그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재촉했던 동기였다. 1925년에 목사가 되어 1926년 1

월에 경산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이러한 때 미국 선교사 버그만을 통해 힐 미국 국무장관에게 일본의 학정을 폭로, 한국독립의 지원을 호소했다. 1938년 진주주재 호주선교사들인 부오란(F. T. Borland), 서덕기(J. M. Stuckey)등을 통해 호주장로교회의 시찰단 방문을 요청하고 일제의 학정, 특히 신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제의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외국에 알리고자 했다. 미국인 범태평양회 창설자가 내한하여 진주에 있는 부오란 선교사 자택에 유숙하게 되자 그와 밀담하여 일본의 학정 곧 산업착취, 기독교탄압, 민족말살, 식민지교육, 강제이민, 농업수탈의 6개항을 설명하고 독립지원을 호소하였던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다.”라고 개탄하면서 이 실정을 가맹 22개국에 퍼뜨려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을 규탄하겠다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교회 담임시 신사참배요구가 거세졌다. 청년들을 경찰서에 가두고 구타하며 괴롭히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김용규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교인들을 연행하고 고문을 가함으로 고심 끝에 1938년 8월 25일 김용규 목사는 ‘이 시국이 지나갈 때까지 신자들은 각 사처(私處)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교회는 잠정폐쇄한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교회 정문에 붙이고 교회당을 폐문했다. 신사참배 강요만이 아니라 예배 전에 동방요배 강요 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 한때 대구동산병원 원목실에 근무한바 있으나 헌병대에 피검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항상 감시의 대상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다.¹⁵

김용규 목사 이력으로 본 그 당시의 시대상은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독립의 희망은 사라지고 백성은 좌절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15 이상규, 『민족과 교회를 사랑한 우암 김용규 목사』 2008, 104.

제2절 김용규목사 목회

서성오, 김영옥, 염봉남 목사의 단기목회가 끝나고 염봉남 목사 후임으로 1926년 1월에 김용규 목사가 제3대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일자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다. 그 무렵의 경북노회록도 분실되었다. 제34회 당회록(1926. 1. 20)에 의하면 위임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1월(去1月) 17일 주일 오후 3시에 본 예배당에서 위임목사 김용규씨를 경산읍 사월 압량 자인 당곡 송림 금곡 7교회 위임식을 경북노회에서 파송한 염봉남씨 주례로 거행하다.」

즉 1926년 1월 17일에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경산읍교회 위임목사로 있으면서 사월, 압량, 자인, 당곡, 송림, 금곡 여섯 교회는 임시목사로 함께 시무하였다.

김용규 목사 재임 중 당회가 34회 열렸다. 1년에 평균 7회가 열린 셈이다. 주로 학습세례문답과 성찬식을 춘추로 거행하였다. 특히 이 무렵 두드러진 점은 권징에 있다고 하겠다. 장로교 헌법 중 권징 조례는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의 교회가 설정한 것인즉 교회의 확고한 기초도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이다. 재임 중의 통계를 보면 주일성수 안함으로 제4계명을 어겨 책벌한 것이 4건이며 이중 일시에 8명이 책벌받기도 했다. 불신혼인 2건, 중혼 3건, 제7계명 범함이 3건, 제5계명 범함이 3건, 도박 2건, 배교성신회방 1건, 예수를 구주됨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을 의심하여 장로직을 권고사면시킨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교회는 연약한 교우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였으며 또한 교회의 권위를 위해 책벌(수찬정지, 직분박탈, 출교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는 더욱 굳어졌다.

한편, 한명수는 장로로 취임하게 된다. 한명수 장로는 사월교회에서 1923년 1월 14일 장로장립을 받고 1927년 3월 8일에 가족 3명과 함께 경산으로 이사를 왔으며 이때 정희순 가족 2명도 함께 사월교회에서 이사를 왔다.¹⁶ 경산교회 제40회 당회록(1927. 3. 5)을 보면 이들 두 가정의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명수 장로는 1927년 8월 14일에 경산교회 여섯번째 장로로 취임하게 된다.



한명수 장로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26년 이전부터 주일학교 교장은 매년 이종성 장로가 담당 하였다. 제46회 당회록(1927. 12. 24)에 보면 처음으로 유년부장 금동윤의 이름이 나온다. 이종성 장로는 경산교회가 사월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의 일원으로서 기록상으로는 주일학교 첫 교장이며 첫 장년부장이며 약15년 시무하였다. 또한 당회서기로 9년 넘게 담당하였다.
- ② 서리집사를 3명 임명하고 권찰로 남 5명, 여 4명을 두었다.
- ③ 교인을 이명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행정이 철저했다.
- ④ 제47회 당회록(1928. 4. 1)에 의하면 예배시간을 다시 오후 2시로 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 ⑤ 1927년 하기학교를 개설하여 교장에 김윤서 장로로 되어있으니 오늘날의 여름 어린이성경학교인 것이다.¹⁷ 1930년 하기 아동성경학교는 8월 4일부터 2주간 하기로 하고 교장에 김용규 담임목사, 교감에 정원서 장로로 결정하고 경비는 10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교회에 연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¹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한 어린이 교육에도 남

16 사월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13.

17 경산교회 당회, “제43회 당회록” (1927. 7. 7).

18 경산교회 당회, “제60회 당회록” (1930. 7. 27).



다른 관심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 ⑥ 1928년 6월 10일 주일, 경산지방 연합으로 백천동 사장(砂場)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¹⁹ 1928년 5월 30일에 개최된 제49회 당회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6월 10일 주일은 경산지방 연합으로 백천동 사장(砂場)에서 야외예배 보기로 가결하다.」

즉 김용규 목사가 겸직하고 있는 교회 경산, 사월, 압량, 자인, 당곡, 송림, 금곡 등 경산 인근에 있는 교회가 한곳에 모여 야외예배를 드리고 교회별로 천막을 치고 국도 끓이고 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순서도 진행하여 친교를 두텁게 했다.

- ⑦ 부흥 사경회를 1928년 10월 5일로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키로 했는데, 강사는 유진성(兪鎭成) 목사였다. 유진성 목사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은 없다. 1931년 음력 1월 중순경에는 주기철 목사²⁰를 강사로 부흥 사경회를 개최했다. 강사 주기철 목사는 호가 소양(蘇羊)이고 아명은 기복인데 1897년 11월 25일(음) 경남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주현성과 조재선 사이의 4남 3녀 중 4남으로 출생하였다. 오산중학교 재학 중에는 이승훈, 서춘, 조만식, 이광수 등에게 교육을 받았다. 마산 문창교회에 시무하다가 1936년 10월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시무하였다. 이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해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란 설교로 신사참배에 대한 강한 입장을 공표해왔다. 그는 헌당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직전에 검거되었다. 일경의 잔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은 점점 나빠져 1944년 4월 13일 병감으로 이감되었다가 4월 21일 오후 9시 순교로 일생을 마쳤다. 이러한 세계에 빛나는 순교자가 경산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 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19 사월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13.

20 초량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 『초량교회 100년사』 제일인쇄, 1994, 134.

- ⑧ 대심방기록이 192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대 심방에 대한 기록은 처음 있는 일이다.²¹
- ⑨ 1929년 3월 29일에 개최한 제53회 당회록에 의하면 4월 28일 주일을 헌신주일로 지키기로 가결하였는데 오늘날의 헌신예배 인듯하다. 경산교회 첫 헌신예배인 것이다.
- ⑩ 교회 제반 각종검사는 12월 19일(1929년) 오후 6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기로 제55회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교회검사제가 도입된듯하다.
- ⑪ 제46회 당회록(1927. 12. 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성탄축하 성극을 본 교회 청년회에 맡기여 하되 당회가 먼저 간단히 예배를 들인 후에 하기로 가결하다.」

이는 청년면려회가 이미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용규 목사 목회시 일본의 압력이 점점 조여오던 중에서도 여러모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였다. 주일학교 조직, 여름 어린이성경학교, 헌신예배, 감사제도 등의 시작, 또한 첫 서리집사 임명, 첫 권찰 임명 등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타난 사항들이다. 이 시기에 오늘의 교회모습과 같은 형태를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교회의 기반조직을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의 기틀을 닦은 뒤 김용규 목사는 1931년 12월 사임하였다. 사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당회록에는 기록이 없고 그 당시의 노회록은 분실되어 알 수 없다.

21 경산교회 당회, “제50회 당회록”(1928. 9. 20), 경산교회 당회, “제55회 당회록”(1929. 11. 30).

제3절 라이온 동사 목회



라이온 목사

라이온(William B. Lyon)목사를 경산교회 첫 동사목사로 청빙하기로 1931년 5월 25일에 열린 제 64회 당회에서 가결하였다. 그 후 1931년 6월 14일 주일에 실시한 성찬예식을 집례 하였으며 당회에 함께 참석하여 1932년 6월까지 동사목사로 시무하였다. 라이온 목사는 대구선교부에서 필요에 따라 경산교회로 내왕하면서 시무하였다. 1931년 11월 2

일에 열린 제66회 당회록에 보면 김용규 목사가 참석하였는데도 당회록 말미에 회장 라이온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동사목사로 시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경회 강사에 대하여 라이온 목사에게 일임하기도 하였다. 김용규 목사 사임 후 후임으로 윤영문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라이온 목사가 시무하였다.

1932년 6월 5일에 열린 제68회 당회록을 보면 당회장으로서 학습세례 문답 및 성례식을 집례하고 이명을 받고 보내기도 하며 책벌도 하였다. 제 68회 당회록에 압량교회 당회장으로 되어있고 이 무렵 사월교회도 시무하였으니 인근 교회와 겸직하였던 것이다.

이로서 경산교회 당회록 제1권 시대는 끝난다. 당회록 제1권 첫머리에는 「경산군 경산면 삼북동 야소교회 약사」라는 제목으로 약사가 1909년 사월교회 분리 때부터 1918년 8월 4일 주일 김성률 첫 장로 장립식까지 기록되어 있고, 1918년 8월 18일 제1회 당회부터 1931년 12월 26일 제67회 당회까지 기록되어 있다.

제 2 장 한국교회와 일제탄압

제1절 신사참배와 교회의 시련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의해 불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후 인내로써 지내는 중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는 도를 더하여갔다.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제국을 세우고 1937년 7월 7일 노구교(盧溝橋)사건을 계기로 하여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일제는 중국의 수도 남경은 물론 중국대륙의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고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1941년 12월 8일 무모하게도 미국 하와이 섬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하고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 선전을 포고하자 전쟁은 태평양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민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징병학도지원병이란 명목으로 전쟁터로 잡아갔으며 남자에게는 징용, 여성에게는 정신대를 강요하였다. 또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교회로 하여금 예배시작 전에 궁성요배와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낭독한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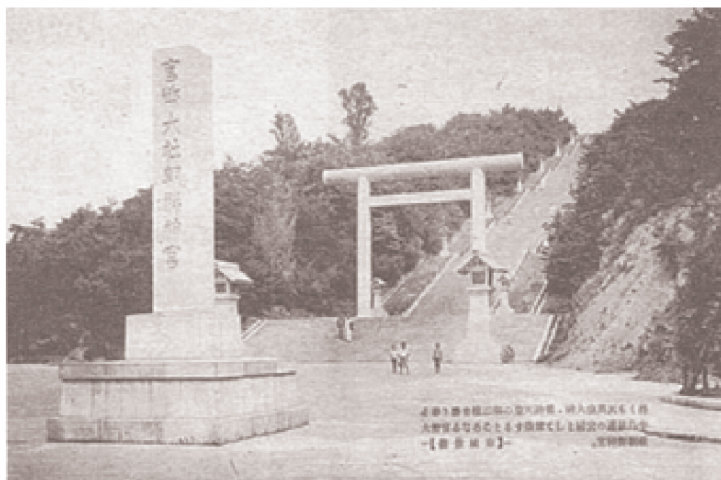
또한 일본은 1925년 서울 남산에 총부지 127,900여 평에 총공사비 1,564,852엔을 들여 조선신궁을 만들고 각 지방마다 신사를 세웠다. 경산에서는 중방동 현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신사가 만들어졌다. 신사참배를 강요함과 동시에 집집마다 신봉(神棚)을 두고 절하도록 강요하였다.

신사참배의 강요로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기독교였다. 이는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핵심적인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독교에서 교리를 내세워 신사참배

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이에 1936년 5월 25일 천주교의 신사참배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다.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반대한 것은 한국 최대 교파인 장로교였다. 그러나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 밖 예배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리고 익일 9월 10일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치밀한 계획과 각본에다 예비구속, 강압 등을 서슴지 않은 실로 강압적인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때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勵行)하고 추(追)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統後) 황국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한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훈택기」



1930년 서울 남산 조선신궁 전경

또한 이러한 신사참배강요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역자 양성의 요람지인 평양신학교는 이를 반대하여 교수학생의 검거, 형사들의 학교 상주감시 가운데 끝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1938년 제1학기를 끝으로 자진 폐교하게 된다.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로 간주하여 순교적 각오로 반대 투쟁하는 입장(반대론), 둘째는 일제의 탄압과 반대 때문에 마지못해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입장(타협론), 셋째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라 하여 신앙양심에 가책이 없이 신사참배를 적극 옹호하고 수용하는 입장(수용론)의 지도자들도 있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난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하는 주의 종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종교정책에 추종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주의 종들을 붙잡아다가 갖은 고통을 주며 심문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천조대신(天照大神)이 높으냐?” 등으로 박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참배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갖은 옥고를 치르고 많은 순교자를 냈던 것이다.²²

경산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북노회는 1928년 8월 19일 오후 2시 즉 총회결의 이전에 제36회 임시노회가 대구성경학원 강당에서 열렸는데 회록은 다음과 같다.²³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국가의식을 거행하다.

- (1) 국기계양
- (2) 국가합창

22 이상규, 『한국교회사』, 고신대학교, 90~106.

23 이재원, 『대구장로교회사 연구(1893~1945)』, 도서출판 사람, 1996.



(3) 황거요배

(4) 황국신민서사 제창

〈 황국신민의 서사 〉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君國)에 보답한다.
2.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상호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공고히 한다.
3.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인고단련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한다.

이어서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최경학씨로 찬송 6장을 인도 합창 후 박영조씨가 기도하고 이상업씨가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고 ‘밀레도에서 열린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

서기가 회원을 점고함에 선교사 2인 목사18인 장로 30인 출석하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 의식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의무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다.”

회 장 김봉도

회록서기 신후식」

이리하여 경북노회도 결의 하였으니 경산교회의 형편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겪은 증인들에 의하면 우리교회에서도 강압에 못 이겨 예배 전에 동방요배 등 국가의식을 행하였던 것이다. 경산교회 제91회 제직회(1937. 9. 26, 회장 윤영문 목사) 회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비상시국 동안에 국가의식은 교회에서 거행하기로 가결하다.」

이리하여 경산교회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따르게 되었다.

그런 중에서도 고 박종길 장로의 간증에 의하면,

「1939년 어느 겨울날 주일에 경산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해서 학교에 등교하라는 소집령이 내려졌다. 신사(현재 중방동 경산중앙초등학교 위치)를 청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본 교회 소속 학생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불참한 학생들은 교장실로 불려가 꿇어앉아 벌을 받게 되었다.

6학년으로서 박종길 (후에 경산교회 장로)

김 은 (김용규 목사의 딸)

양○○ (양재엽 경산교회 담임목사 딸)

최성호 (최재학 장로 장남)

한시은 (후에 경산중앙교회 장로)

이 소식을 듣고 학교를 찾아간 최재학(후에 장로)과 교장 오노 간주케(일본인)와 언쟁이 벌어졌다. 처음 교단에 선 이수경 선생(후에 권사, 당시 경산교회 이종성 장로 딸)은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후일 의사로 성공한 박종길 장로는 1957년 미국으로 가는 도중 공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일본인 세키구치 아사치게를 만났다. 그의 형은 기독교 신자였다. 당시 교장실에 불러 호통하던 일본인 교장 오노 간주케가 중풍으로 앓고 있는데 가보겠느냐 하는데 대해 단호히 거절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다.

필자도 초등학교 다닐 무렵 여름이었다. 한번은 목조건물인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시간이었다. 당시는 청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뒤 좌석에 의자가 둘 놓여 있는데 한 자리는 당시 경산 초등학교 일본인 교장이 앉고 옆자리에는 경산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앉아 감시하는 것을 보았다. 설교때 트집거리를 잡아내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기도는 이종성 장로였는데 흰 한복(모시 두루마기)을 입고 있었고 찬송은 ‘예수의 이름 권세여’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전쟁에 혈안이 된 일제 군벌들의 이러한 만행을 체험하면서도 우리교회



교인들은 눈물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극심한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였느냐?

제2절 제4계명의 침범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태평양전쟁이 치열해 갈수록 도를 더하여 갔다. 처음에는 제1계명을 침범해 오더니 점차 제4계명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제4계명이다. 전시에는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근로봉사를 강압하였다. 경산교회에서도 1943년 8월 19일에 개최된 제143회 당회(당시 장로회)에 의하면,

「‘집회시간 단축에 관한 건’ 집회시간은 야간집회는 전폐하고 주일 오전 9시로 12시까지 필요(畢了)하기로 결정하다.」

라고 결의하고 있다. 주일날 상점에 문을 닫으면 경찰에 불려 가기도 하였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여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다.

제3절 일제의 교회탄압

일제의 교회탄압은 1935년 신사참배 강요를 시발로 태평양전쟁이 불리해 질수록 단말마적(斷末魔的) 통제로 들어갔다. 창세기명을 명하여 전인구의 80%이상을 일본식 성으로 바꾸게 하고, 집집마다 신봉을 배부해 섬기게 했으며,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외우게 했다. 또한 일본의 축제일과 기념일을 엄격히 지키고 국기(일본국기) 게양, 궁성요배, 신사참배, 정오묵도, 국민복 착용, 유기(놋그릇)헌납 등을 강요했다.

1941년 이후 한국장로교회는 70만 명을 헤아리던 교인수가 그 절반으로 감소되어갔다. 1943년 9월부터는 주일오후, 주일저녁, 수요일밤 집회가 금지되었다.

청년 면려회가 해체되고 사경회도 개최가 금지되었다. 그 외 일제의 압박 사실을 열거해보면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방공호를 파라고 독촉하여 제 162회 제직회록(1943. 3. 7)에 의하면 경산교회에서도,

「방공시설 하기로 하였다.」

제163회 제직회록(1943. 4. 4)에 의하면 제직일동이 본월(4월) 6, 7일 양일에 본 교회 방공호시설에 주력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일제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를 조직케 하고 산하 경북노회연맹은 1937년 12월 13일 제38회 노회가 대구성경학원에서 열렸을 때 결성식을 가졌다. 각 교회는 산하기관으로 애국반을 결성하도록 강요 받았다. 경산교회에서는 1940년 1월 7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제115회 제직회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애국반 결성식은 제2주일 오후 3시에 본 예배당에서 거행키로 가결하다.」

각 교회 앞으로 송달된 애국반 결성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교회를 전시체제로 만들었다.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야소교 장로회
경북노회 ○○교회 애국반 결성식 순서

시 일 :

장 소 :

국가봉창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송
찬 송 가



기 도

성서낭독

취 지

규 약

선 언

목 도 황군장병을 위해, 동양평화를 위해

찬 송 가

축 도

또한 교회마다 애국총력 포스터를 만들어 달도록 강요했다. 1941년 7월 13일에 개최된 제141회 제직회록에 의하면 ‘종교보국(宗教報國) 총력발휘’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달기로 가결함을 볼 수 있다.

1940년 3월 8일 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경북노회는 산하 교회에 다음과 같은 지시가 각 교회에 하달되었다.

- ① 매월 초 1일에 신사참배 할 것
- ② 매월 첫 주일은 애국예배로 지킬 것
- ③ 국가적 행사의 여행(勵行)
- ④ 특별집회는 반드시 국가의식을 거행할 것
- ⑤ 매일 가정에서 궁성요배 할 것
- ⑥ 정오에 묵도할 것
- ⑦ 시국표어를 예배당 정면에 붙일 것

‘황도실천(皇道實踐) 전도보국(傳道報國)’

- ⑧ 방첩에 유의할 것
- ⑨ 물자를 절약할 것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가

히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물자가 부족해지자 일본은 총알이나 포탄을 만들기 위해 낫제품을 헌납이라는 이름으로 수탈해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은 낫제품을 가지고 있었다. 주발(밥그릇), 탕기(국그릇), 쟁첩(반찬그릇), 종지(간장그릇), 보시기(김치그릇), 조치보(찌개그릇), 낫수저, 낫양품, 낫주걱, 낫국자, 낫대야, 낫화로, 낫촛대, 낫항로, 낫요강,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등도 있었다. 우리나라사람은 유난히도 낫제품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는 이를 잘 알고 유기헌납을 요구하는 공문에서 조선사람들의 애유기지심(愛鑰器之心)을 애국심으로 바꾸어 바치도록 강요하였다. 동리에서도 바치고 교회에서도 바쳐야했다. 경산교회에서도 1941년 8월 17일 개최한 제직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유기헌납에 관하여는 내 24일 주일에 일반교우에게 광고하여 8월 31일 주일에 헌납 거행하기로 가결되었다.」

무기제조에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종도 바치라고 강요했다. 교회종은 교회의 상징물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당시 시계가 일반화 되지 않고 있던 시절에 교회종소리는 새벽기도회를 비롯하여 예배시간을 알리며 상인들이 새벽종소리를 들으면 시장길 출발의 신호로 삼아 시계구실도 하였다. 일제는 조선땅에 있는 모든 철제품을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전국교회의 종과 종각과 각종 쇠붙이를 빼앗아 가서 무기를 만드는데 쓴다고 하였다. 1942년 5월 7일 국민총력경북노회연맹 이사장 송창근은,

「...철물회수는 현하 긴급한 정세이라 오노회(吾老會)에서는 관내 수백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 및 철제종각 기타 철물을 일제히 헌납하기로 결의하였기로 이에 통지하오니 귀지관계관청(경찰서, 경찰관, 주재소)에 의뢰하여 속속 헌납하고 좌기 양식에 의거 보고해 주심을 요망함…」

이러는 공문을 각 교회에 보내어 일제에 적극 협조한 슬픈 일면도 있다.



경산교회에서도 1942년 5월 10일 제152회 제직회 제1차 임시회의록에서,

「...본 교회 중 헌납하기로 가결하다.」

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중을 내어 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매월 첫 주일을 애국주일로 지키라 해서 경산교회에도 1941년 7월 13일 개최한 제141회 제직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매월 제1차 주일은 국가의식으로 예배보기로 가결하다.」

또한 위문대(慰問袋)를 만들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산교회 당회록 및 제직회록을 보면 연도를 주후 몇 년으로 기록되어있던 것을 지우고 일본년도인 소화(昭和)로 기록하게 하였다. 경산교회 제128회 당회록(1941년)부터 소화연호를 사용하였다. 제직회록은 제1회(1933년)부터 주후 몇 년을 지우고 소화로 고쳐 쓰고 있다.

또한 목사들로 조직된 근로봉사대인 경북기독교전시보국회에 동원된 목사들도 많았다. 동촌비행장 또는 금호비행장 확장공사에 투입되어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목사들을 강제 노동장에 보내놓고 이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어 위문금을 내놓도록 강요하였다. 경산교회에서는 일금 10원을 냈다.

기 증 자	내 용
시내교회 연합	일금 150만원
경주읍 내동교회	일금 20원
고령 평리교회	송편 1상자
대구 제일교회 부인회	계란 100개, 6월 9일 조반
대구 여자청년전도회	파적, 콩
범어교회	상추, 쌀밥 2말
유경열 장로	계란 100개
자인 윤성대 장로	옥수수 1말



신정교회 부인회	송편 1시루, 사이다 45병
신정교회 장로회	일금 15원
풍기교회	일금 10원
경산고산 사월교회	떡 1시루
자인 구왕도목사 부인	두맥 3되
고령읍 교회	일금 10원
삼립정 大本奇一	일금 5원
불로동 교회	상추, 쌀밥
월배 상인교회 옥포 신당교회 화원면 천내교회	꽂치 12두름
신정교회 임계석 집사	우동 2관
영덕교회	일금 5원
신정교회 김병락	나무저 50본
안동읍교회	일금 20원, 떡 1시루
남산교회	6월 5일 저녁전담
대구부 이현교회	떡 1시루
홍해읍교회	일금 10원
김천읍교회	일금 20원
고령 유동교회	일금 10원
김천읍교회	일금 20원
경산읍교회	일금 10원
이원우 목사	일금 20원
대구 침산교회	떡 1시루
박래승 목사	사이다 50병
방촌교회	감주, 사꾸람보
박위준	жат서말, 니야까
중앙교회 유지	6월 8일 저녁
철성교회	일금 20원
정안당 김정오	약품
구왕삼	약품



애국헌금을 바치라는 강압도 있었다. 1941년 12월 28일 개최된 제141회 제직회 속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헌납기에 관한 연보의 부족조는 통상비로써 충당하기로 가결하다.」

또한 군용기 제작비까지 부담시켰다. 1941년 1월 12일 개최된 제135회 제직회 속회에서,

「국방헌금 20원 헌납하기로 가결하다.」

로 되어있으니 국방헌금까지 하였다.

찬송가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만왕의 왕’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피난처 있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이’ 등의 찬송가는 못 부르게 하였고 사도신경 중에도 금지시킨 부분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말기가 되니 신성한 교회를 일본 군인들이 와서 사용하고 교인들은 목사사택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다.

일제는 전쟁이 치열해지고 패색이 짙어지자 더욱 압박을 가해왔다. 일반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해가고 많은 사람이 부황(浮黃)이 들어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부었다. 징용제도, 징병제도, 근로보국대, 근로동원, 여자정신대에 청장년들이 동원되어 광산토목공사, 군수공장에 투입되어 보수도 없이 노예와 같이 노동에 동원되었다.

제4절 새 교단의 결성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는 ‘일선(日鮮) 기독교 일체화’라는 종교정책을 세우고 한국기독교의 말살을 획책했다. 그 첫 단계로 교파의 통폐합이 본격화되어 1942년부터 우리나라 개신교 각 교파들이 고유한 명칭을 쓰지 못하고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되었다.

여러 과정을 거쳐 1945년 8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들을 한데

묶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명칭 하에 교인수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일본기독교의 산하로 흡수시켰다. 일제는 이러한 그들의 종교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거나 강단에서 몰아내고 일제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맡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개신교가 20여 교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 교파인 장로회는 3,000교회에 30만 신자가 있었다. 각 교파는 그들의 교의 신학, 성경해석, 교회조직 및 의식습관에 있어서 고유한 사상을 버리고 순 일본식 기독교 교리를 강요받았다. 이때 새로이 조직된 조선교단의 책임자인 총리는 채필근 목사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당회’라는 장로교 고유 명칭을 없애고 ‘장로회’라고 부르고 ‘공동의회’를 ‘교회회의’라고²⁴ 부르게 하였다. 주일학교는 ‘수련회’, ‘수양회’ 또는 ‘부흥회’를 ‘연성회’라고 하였다.

24 제143회 장로회 ‘당회’ (1943. 8. 19).

제 3 장 수난기의 경산교회

경산교회 당회록 제2권의 시대가 된다(제68회 1932. 6. 5~제157회 1946. 12. 22). 일제의 압박이 점점 심해져가는 시기이며 마침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극심한 핍박 중에 일본의 패전으로 조국은 해방이 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교회재건의 시기를 맞게 된다.

제1절 운영문목사 목회



운영문 목사

운영문 목사는 1932년 7월에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온 목사가 6월에 떠난 후였다. 정확하게 며칠에 부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6월 하순경부터 7월 사이 부임한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1933년 8월 27일에 개최된 제84회 제1차 임시 제직회록에는,

「...9월 제2주일 윤목사 위임예식 안내장을 각 교회 발송하되 명의를 당회서기로 문서발송위원은 최재학씨로

택결하다.」

로 기록되어 있어 1933년 9월 2차 주일에 위임식을 거행하여 경산교회 제4대 위임목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사월교회 100년사』 219면을 보면 1933년 1월 8일에 사월교회에 부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다른 교회와 함께 목회한 것이다. 1933년 11월 29일에 개최한 제13회 정기제직회록에 의하면,

「본 교회와 사월교회가 협력하여 목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월 35원야를 담당하고 전년(前年)예로 연합할 경우에는 월 30원야만 담당키로 가결하다.」

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보건데 경산교회는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타 교회는 임시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윤영문 목사가 부임한 그해(1932년) 11월 26일에 개최한 제71회 당회록에 의하면 1933년 주일학교 교장에 이종성 장로, 유년부장에 조인순, 장년부장에 최재학을 임명함을 볼 수 있다. 전선(全鮮: 조선전역이란 의미) 주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입회금을 주일학교 연보로 보조하기로 하였다.²⁵ 그리고 여름어린이성경사경회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토록 한 바도 있다.²⁶ 남녀강사 두 사람을 청하되 비용이 부족하면 교회 통상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주일학교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경산교회 첫 부교역자로서 이름미상의 여전도사가 부임하였다. 그 당시에는 전도부인이라 하였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직명만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요즈음과 같이 당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제직회에서 부교역자를 선정하였다. 첫 부교역자로서 전도부인이 1933년 3월에 부임하여 1933년 8월까지 시무하고, 교회의 부득이한 재정적 사정에 의하여 8월말로 사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경산교회 첫 여전도사는 단기시무로 끝났다. 다음해 곧 1934년 8월에 경산교회 2대 여전도사로 김선에 전도사가 부임한다. 그러나 이 또한 단기로 시무하다 사임한다. 사임일자는 1935년 7월 7일이였다. 그 후 양봉림 전도부인이 1935년에 부임하여 1936년 7월 5일까지 시무하였다. 그 후 윤남조 전도부인이 1936년 12월에 부임하여 1939년 1월 15일 까지 시무하였다. 사임 시기는 윤영문 목사는 떠나고 양재엽 목사 목회 때였다.

남자 부교역자로서는 첫 전도사로서 김명득이 여전도사보다 약 1년 5개월 늦은 1935년 1월에 부임하여 1937년 8월 1일까지 시무하였다. 8월 1일에 송별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제85회 제직회록(1937 8. 1)에 기록되어

25 경산교회 제직회, “제11회 제직회록” (1933. 9. 24).

26 경산교회 당회, “제101회 당회록” (1938. 6. 12).



있다.

1936년 12월에 정인명이 제2대 전도사로 부임한다. 김명득 전도사가 1937년 8월 1일 사임할 때까지 함께 시무한 셈이다. 정인명 전도사는 1937년 12월 27일까지 시무하였다.

일제의 압박이 가중되어가는 시기로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움이 더해가는 시기였다. 이 무렵 몇 가정이 이명 오기도 하였으나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참고로

- 김선자씨 가족은 안동읍 교회로,
- (73) 김순풍씨 가족은 대구 칠성교회로,
- 김명집씨 가족은 대구 동운정 교회로,
- 구문기씨는 사월교회로,
- 배분숙 전태분 양씨는 각기 이거된 곳으로,
- (84) 리필연씨 사월교회로,
- (85) 조인숙 가족은 군산교회로,
- (87) 리상우 가족은 부적교회로,
- (88) 최봉학씨 안동읍교회로,
- (92) 서성희씨 자인교회로,
- 김두환씨 신천교회로,
- (94) 정선화 가족은 자인교회로,
- (103) 추두리 가족 3명은 대구신정교회로 이명 하였다.
- ()속의 번호는 당회록 회순을 말함

이러한 시기에 윤영문 목사는 부임한 다음해 1월 제직회(제1회 제직회 1933. 1. 11)에서 매주일 청정에 기도하기(새벽기도)로 가결함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나 교회적으로는 새벽기도회를 주일마다 담임목사가 인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윤영문 목사가 부임한 다음해인 1933년 목사사택을 구입기로 하고 서재준, 정원서를 택하여 맡기기로 하였다. 1933년 4월에 개최된 제4회 제직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대지120평, 2동 6간, 대금 120원으로 경산 교회에서는 목사사택을 처음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33년 8월에 예배당을 수리하고 전도실과 목사사택을 수리하였다.

1933년 3월에는 정원서 집사가 헌납한 특호종을 교회에서는 감사히 받고 종각을 세우고 교회종을 달아서 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집회를 알리는 종을 쳤는데 초종은 집회 30분전에 길게 치고 집회시간이 임박해서 짧게 치는 것은 재종이라 하였다. 교인이 세상을 떠나면 종각에 올라가서 종을 쥐고 세상 떠난 사람의 연령수대로 천천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치면 당시 인구가 많지 않고 전원도시 같은 분위기에서 세상 떠난 사람의 나이 수대로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면 불신자들도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다 알고 발걸음을 잠시 멈추기도 하였다.



정원서집사가 헌납한 특호종

이 무렵의 경산교회 재정형편을 보면 1934년 4월 1일에 개최된 제4회 제직회 때의 회계보고는 다음과 같다.

내역 이 월 금 77원 49전



주 일 연 보	35원 42전
사 경 회 연 보	12원 90전
종 각 연 보	24원 46전
백 양 목	2원
지 출	101원 90전
종 각 비	45원 42전
사 경 비	17원 51전
목사 생활비	31원 30전
강만유 결혼축금, 김무생 신학졸업	5원 20전

1935년 1월 30일에 경산교회 일곱 번째 장로로 정원서 집사가 장립되었다. 정원서는 특호 중을 교회에 헌납한바있다.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철공



정원서 장로

소(영신 철공소)을 경영하면서 헌금하여 오랫동안 교회 재정부장을 맡아 교회재정운영 및 재정봉사에 많은 헌신을 하였다. 일제의 모진 압박이 가중되던 시절, 정원서 장로는 자신의 과수원을 팔아 예배당 신축을 준비, 교회 신축용 시멘트 300포를 구입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영신 철공소 창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일본군이 징발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1942년 여름, 사흘 동안 시멘트 300포를 소달구지에 싣고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 대구 남산동 조양 철공소에 까지 옮겨 은닉한 역사적 사건도 있었다.



안상기 장로

한편, 1936년 12월 27일에는 경산교회 최장기로 시무한 안상기가 경산교회 여덟 번째 장로로 장립되었다. 안상기 장로는 경북노회에서 권서로 수고하였고 조사로도 수고하였다. 1925년 1월 9일에 개최된

제17회 경북노회 계속회록에 의하면 조사를 사면한 사실이 경산교회가 소속되어있는 동편 시찰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한편, 1923년 7월 15일 장립한 이종성 장로는 1933년 5월 13일부터 1936년 12월 27일에 재취임할 때까지 쉬게 된다. 안상기 장립식 때 재취임 하였다.

1936년 12월 27일 이종성 장로 취임식, 안상기 장로 장립식 순서는 제 94회 당회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찬 송		32장
기 도		박치일
설 교		라이온
서 약		윤영문
권 면	1. 장로 대하여	박치일
	2. 교회 대하여	김병호」

한편, 1937년도 주일학교조직은 다음과 같다.

교 장	이종성 장로
서기겸 회계	안상기 장로 유년부 서용학 집사
유년 부장	최재학 집사
장년 부장	한명수 장로
유치 부장	림종실

또한 서리집사를 공동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남	정희순, 서용학, 한시은, 김 건
여	서혜수, 신도희, 김홍인



한편, 각 구역 권찰은 다음과 같다.

삼북, 서상, 삼남	남 김명섭	여 사봉희
상방, 사동	남 서재준	여 백귀복
중방	남 은소윤	여 장복네
사정, 옥곡		여 정범선
임당	남 최재학	여 최숙이
계양, 평산, 삼풍	남 이도수	여 신순백

이리하여 권찰직을 맡김과 동시에 임시로 제직회원권을 주기로 하였다. 당시 인력이 부족할 때 권찰이 제직원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다.

이 무렵 어려운 중에서도 외부보조를 많이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월교회 예배당 대지증설에 대한 보조금 65원²⁷, 원대교회 신축예배당 보조금 5원²⁸야, 고 길선주 목사 별세부고에 대하여 금 3원 부의하되 교회통상비에서 지출키로,²⁹ 금곡, 대명 양교회를 1개월에 두 주일씩 도와주기로 가결하되 그 주선일 일절은 윤영문 목사에게로 전임(傳任)키로 가결하다.³⁰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 재정이 궁핍하지 않아 타 교회 보조도 할 수 있었다.

신영균씨 가족의 실화(失火) 참경에 대하여 교회통상비로 10원, 염목사 별세조의금 5원,³¹ 예수교서회 연보 2원, 산동성 성경학교 건축비 5원,³² 신지(薪旨)교회 건축연보 청원에 대하여 5원, 민휴(閔休)先生 記念事業에 대

27 경산교회 제직회, “제4회 제직회록” (1933. 4. 9).

28 경산교회 제직회, “제24회 제직회록” (1934. 7. 8).

29 경산교회 제직회, “제54회 제직회록” (1935. 12. 1).

30 경산교회 제직회, “제6회 제직회록” (1933. 6. 4).

31 경산교회 제직회, “제75회 임시제직회록” (1936. 1. 11).

32 경산교회 제직회, “제78회 제직회록” (1937. 1. 31).

33 경산교회 제직회, “제80회 제직회록” (1937. 4. 4), 사월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 23.

하여 1円만 보내기로 可決하다.³³ 제주성경학교 건축연보는 맥추연보의 1/10을 부송키로, 成書公會연보는 1원 보내기로, 사월교회 건축연보는 50원 주기로 可決하다.³⁴ 本月 8, 9 兩日에 평양 승전학교 학생전도대 부비(浮費: 일에 드는 비용) 20円 가량으로 금액 남전도회 金으로 접대위원 안상기, 이종성 兩氏를 선정하다.³⁵ 이용진(李用鎭) 목사 가족 구제로 통상비 5원 주기로 可決하다.³⁶ 평양 맹아학교 구제금 2원, 신망애 구제금 3원 20전, 성탄연보 미수금을 수납하여 주기로 하다.³⁷

또한, 인력보조도 볼 수 있다. 대명동교회 주일마다 강도 인도는 본 교회에게 담당키로 한 것은 如左히 順序를 정함³⁸ 1.안상기 2.정원서 3.정희순 4.이종성 5.정명득 6.김두환 7.한명수, 사월교회에서 정○○ 전도사 청원건은 2주간만 허락하기로 가결하다.³⁹ 대명, 금곡 양 교회에 내년도 교역인은 본 제직회원 중 최재학을 파송키로 가결하다.⁴⁰

한편, 5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한 신록의 계절에 전교인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성암산록에 모여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함께 하며 친교 하였다.⁴¹

일찍이 경산교회에서는 조기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33년 3월 12일에 개최된 제34회 제직회록에서 유치원 사업연구위원으로 이종성, 정원서, 최재학을 택정한 것을 볼 수 있다. 1933년 5월 31일에 개최된 제직회록에 의하면 유치원 연구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채용키로 하고 유치원 설립 실행위원을 정원서, 최재학, 운영문으로 정하였다. 드디어 유치원 명칭

34 경산교회 제직회, “제84회 제직회록” (1937. 7. 4).

35 경산교회 제직회, “제84회 제직회록” (1937. 7. 4).

36 경산교회 제직회, “제93회 제직회록” (1937. 10. 31).

37 경산교회 제직회, “제95회 제직회록” (1937. 12. 25).

38 경산교회 제직회, “제29회 제직회록” (1935. 2. 3).

39 경산교회 제직회, “제91회 제직회록” (1937. 9. 26).

40 경산교회 제직회, “제94회 제직회록” (1937. 12. 19).

41 경산교회 제직회, “제99회 제직회록” (1938. 5. 1).

을 경신(慶新)으로 정하고 유치원 설립자는 윤영문 담임목사로 결정하였다. 그 후 상세한 기록은 볼 수 없으나 경산교회는 일찍이 계동학교에 유치원을 경영하는 등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보여 왔다. 비용은 주일학교에서 15원을 빌려 쓰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운영도 잘되고 있어 1933년 9월 24일 열린 제11회 제직회록에서 전국주교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에게 입회금 1원씩을 주일학교 연보에서 보조하여 주기로 결의하였을 뿐 아니라 대회강습중 기숙사 교섭위원으로 최재학, 정원서를 택하여 유숙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주교생활대회에 출연준비위원은 윤영문, 최재학을 택정하여 여러모로 준비하였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성경공부에도 힘썼다. 10인 이상의 밤사경 회원을 모집하여 11월 13일부터 2월말까지 성경공부를 하고 과목은 선생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⁴²

한편 청년면려회는 이미 1927년에 혹 그 이전에 조직되어 있는바⁴³ 이 무렵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성탄축하에 대한 일은 청년면려회에 일임하여 진행하였다.⁴⁴ 뿐만 아니라 청년면려회 주최로 경로회를 개최하는데 경비가 부족하여 당회에 보조 청구하였던바 교회 통상비에서 3원을 지불기로 하였다.⁴⁵ 청년면려회에서는 매월 2차 저녁예배를 당분간이란 단서가 있지만 청년면려회 주최로 드리기로 하였다.⁴⁶

한편 경산교회 남전도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1935년 6월 8일에 개최된 제88회 당회록에 의하면,

「본 교내 남자부에 전도회를 조직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42 경산교회 제직회, “제12회 제직회록” (1933. 11. 5).

43 경산교회 제직회, “제46회 제직회록” (1927. 12. 24).

44 경산교회 제직회, “제54회 제직회록” (1935. 12. 1).

45 경산교회 제직회, “제53회 제직회 임시회록” (1935. 11. 17).

46 경산교회 당회, “제72회 당회록” (1933. 3. 11).

로 기록되어있다. 어떠한 형편으로 조직되었는지 상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경산교회가 설립된 지 26년만의 일이다.

윤영문 목사 목회시대의 특징 중 하나를 들자면 부흥사경회 일 것이다. 해마다 때로는 1년에 두 번 이상 부흥회를 개최하여 당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각성을 촉구하였다. 부임한 그해(1932년) 가을에 첫 번째 부흥회가 열리게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예정대로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것이 있다. 부흥회 준비기도회도 1주간 열렸는데 시간은 오전 5시 30분으로 되어있다.⁴⁷

〈윤영문 목사 재임 중 부흥사경회 일람표〉

	연 월 일	강 사	개최여부	비 고
1	1932. 가을	강만조 조사 (봉회교회)		제70회 당회록
2	1933. 겨울	주기철 목사 (마산교회)		제72회 당회록 「금번 부흥회강사 주기철 목사 허락한 마산교회 당회에게 감사장 보내기로 가결하다.」
3	1934. 음 1월중	정인과 목사 최재화 목사 중1인 배은희 목사		제9회 제직회록(1933. 8. 13)
4	1935.4.22(월) ~4. 25(목)	림중순 목사		제33회 임시제직회록(1935. 4. 21) 임시사경회
5	1935. 11월중	김광수 목사		1934. 9. 16 제직회회의록 1934. 12. 9 임시제직회록 1935. 1. 6 제28회 제직회록 강사접대비 15円 60전 1935. 10. 6 제40회 제직회록

47 경산교회 제직회, “제15회 정기제직회록” (1934. 2. 4).



6	1935.음8.19 부터 한 주간	차제명 목사	제32회 임시제직회록 개최되지 못한 듯(제40회 제직회록참조)
7	1936.음8.15 부터	김영수 전도사	제60회 제직회의록(임시사경회) 제61회 제직회의록
8	1936.11.3~ 1주간	이수현 목사 (군산)	제64회 임시제직회록 제68회 제직회록 제74회 제직회록(사경회 숙소식사)
9	1937. 음 8. 16~		제80회 제직회록(1987. 4. 4)
10	1937. 겨울	이대영 목사	제89회 제직회록 제93회 제직회록 사례비(전별비) 30원 1937. 11. 28 임시제직회
11	1938. 3(?)	김영수 전도사	제97회 제직회(1938. 3. 6) 1938. 3. 20 임시제직회록 사례 20원 내왕 차비 지불하기로
12	1938. 가을		제102회 제직회록(1938. 8. 7) 제103회 제직회록(1938. 9. 4)
13	1938.	김길창,이문주, 김태묵 3인중 1인	제104회 제직회 임시제직회록 (1938. 10. 16)

또한 윤영문 목사는 재임 중 부흥회강사로 많이 청빙되어 여러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큰 은혜를 끼쳤다. 윤영문 목사의 타 교회 부흥회 인도상황을 살펴보면,

- ① 대구범어교회⁴⁸
- ② 삼산교회

48 경산교회 당회, “제70회 당회록” (1932. 9. 30).

- ③ 동운정교회⁴⁹
- ④ 포항시찰사경회 11월 26일부터 1주간⁵⁰
- ⑤ 칠곡옥계교회⁵¹
- ⑥ 박사교회 구(음력)1. 6부터⁵²
- ⑦ 의성학미교회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 ⑧ 칠곡인의교회⁵³
- ⑨ 등대교회
- ⑩ 우천교회

제85회 당회계속회록(1935. 2. 8)에 의하면,
 「목사 출타시는 주일예배는 한명수 장로, 저녁과 3일 기도회(주, 수요일 밤예배)는 정원서 장로로 가결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주일 낮예배는 오후에 드렸다. 제94회 당회록(1936. 12. 27)에는,

「시무목사 없을 때에는 주일새벽 한명수, 오후예배 이종성, 저녁 안상기, 삼일예배 정원서 제씨로 가결하다.」

로 기록되어 있으며 1934년 12월 9일에 개최된 임시제직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목사 외출 사경회 수는 4회로 가결하다.」

부흥회 강사요청을 당회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으며 1935년 12월 15일에 개최된 제55회 임시제직회에서,

49 경산교회 당회, “제82회 당회록” (1934. 9. 20), 경산교회 제직회, “제26회 제직회록” (1934. 9. 21).

50 경산교회 제직회, “제직회 임시회록” (1934. 10. 24).

51 경산교회 제직회, “제76회 제직회록” (1936. 12. 6).

52 경산교회 제직회, “제77회 제직회록” (1937. 1. 3).

53 경산교회 제직회, “제95회 제직회록” (1937. 12. 25).

「내년도(1936년)에 타처교회에서 사경선생 청원은 삼차만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여 한차례 더 줄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외부에 너무 많이 나갈 경우 본 교회 목회에 지장이 있으리라는 염려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 무렵 오래된 교회건물을 새롭게 교회당 건축을 하자는 생각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예배당 신축기지 연구위원을 선발함에 정희순, 최재학, 이종성 세 사람이 선출되었다.⁵⁴ 동시에 예배당을 증축하고 종각을 건축하는 등 여러모로 교회당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중 교회당 건축위원회에 이종성, 정원서, 정희순, 최재학, 한명수, 서용학, 안상기 등을 선출하였다. 아무튼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윤영문 목사는 약 6년 4개월을 재임하면서 교회설립 후 가장 오랜 기간 목회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교회전반에 대한 정비 및 발전에 헌신하다가 경산교회 제103회 당회의(1938. 11. 5) 사회를 끝으로 1938년 12월 18일에 개최된 임시제직회에서 윤영문 목사 전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됨을 볼 수 있다. 1938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제37회 경북노회 정기회중 16일 계속회에서 경산교회를 사임하였다. 따라서 12월 하순 무렵에 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제직회 조직

경산교회는 1909년 사월교회에서 분립 시부터 직분자 상계 시무하였다. 1918년 8월 18일 제1회 당회가 열림으로 당회가 조직되었으나 제직회는 회칙 없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계속 집사가 선출되었으며 1924년에는 첫 장립집사로 김성원씨가 장립되었다.

54 경산교회 제직회, “제57회 제직회록” (1936.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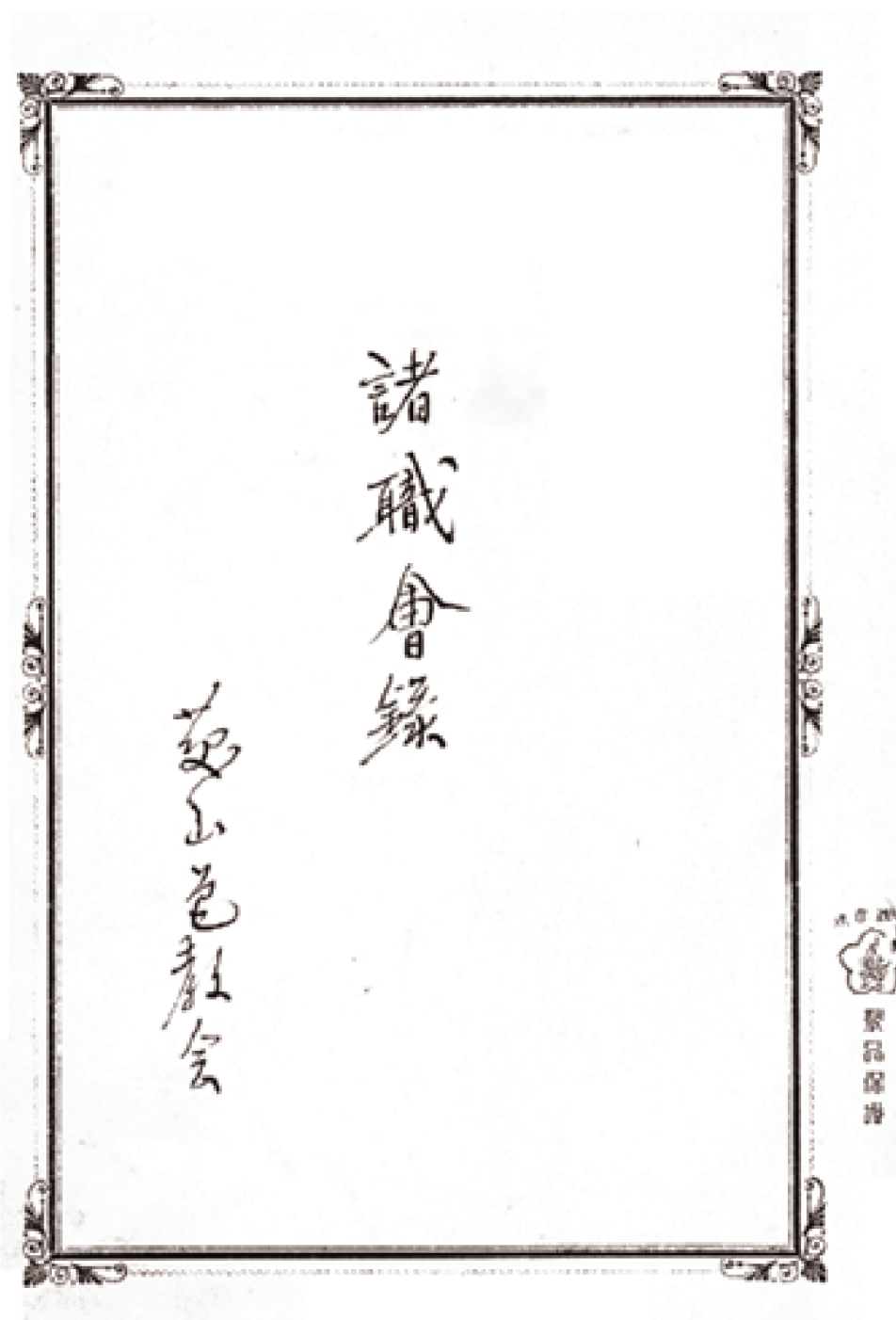
1918년 9월 7일에 개최된 제2회 당회록에 의하면,

「...8일에 제직회하여 학부모 모이기로 작정하고...」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로서 보건데 제직회는 초창기부터 열리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교회 제반일은 당회에서 많이 처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1932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71회 당회록을 보면,

「제직회 회칙 편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드디어 1933년 1월 11일 오후 8시에 예배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경산교회 제직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윤영문 목사, 이종성 장로, 한명수 장로, 정원서 집사, 정희순 집사, 조인순 집사, 최재학 집사이다. 제2회 제직회 때부터 여 집사도 참석하였다. 경산교회 제직회 창립총회(제1회 제직회) 회의록을 원본그대로 첨부한다.



1. ^{名簿} 聖山是教會諸檢會可謂也
2. ^{月報} 教會各代表幼中諸會諸檢事業是研究實也
3. 位豆本教會則置也
4. 組織 聖會員 男女將主執事及署理執事 男女傳道
師 男女勸導等은也
5. 任員 會長一人 書記一人 會計一人은也
6. 任期 會長是壹人會長은例兼并書記兼會計是滿之令
年은也
7. 選舉方法 每年初次定期會則投票從多數是也
8. 會集是每月初五日定期通常會是并其他必也也時

千四



牙回

世臨時會三章

9. 會費出納會通常費互引用也

10. 開會或終世會會員三分之二是也(但開會時出半數也

互兼半以上也)

11. 會議規則長老會議會通用規則也

12. 會議減減 會費三分之一可決也

13. 施行 本會通過日計施行也

以上

一任當是據是誌外書記趙煥淳會計鄭元諤氏是也
決外也.

一末主日共同議會의 男執事三人 女執事二人是據也



書記 趙 寅 淳

一 每日清晨祈禱會友可決하다
 一 夫人會友未捐助之者會友應責其收入其夫人會友
 業의 必要의 時에 該 會友 何은 平均 表 準 하여 幫助
 可 決 하다
 一 聖徒 閱 覽 井 閱 卷 是 作 以 外 該 會 友 是 初 獎 的
 可 決 하다
 一 開 會 可 決 的 會 友 在 在 鵬 友 的 可 決 可 決 時
 此 開 會 是 必 有 하다

會 友 尹 永 文

제3절 양재엽목사 목회



양재엽 목사

1938년 12월에 운영문 목사 후임으로 양재엽 목사가 부임하였다. 1939년 1월 1일에 개최한 제104회 당회록에 양재엽 목사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경북노회 제37회 정기노회가 1938년 12월 13일에 개최된바 16일에 열린 노회에서 양재엽 목사를 경산교회에 청빙함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 1938년 12월 하순경에 경산교회 제5대 위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1939년 3월 12일에 개최한 제109회 제직회

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본 교회 목사 위임식 내월 2차 주일에 거행하기로 교섭 가결하다.」

따라서 목사 위임식은 1939년 4월 2차 주일에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교역자로는 이위련 여전도부인(1939. 4~1940. 12)과 박복원 전도부인(1941. 9~1943. 5)이 시무하였다.

이 무렵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가중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비록 약 2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조직적인 목회가 이루어졌다.

한편, 제105회 당회록(1939 1. 8)에 의하면 주일별 정기모임을 정하였다.

제 1 주일은 제직회

제 2 주일은 부인 전도회

제 3 주일은 남전도회

제 4 주일은 권찰회로 모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기모임은 오늘날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양재엽 목사 부임 다음해인 1939년에 제직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흥회에서 대대적으로 본 교회 신축 기성회 연보를 하기로 가결하였다.⁵⁵ 그리고 교회신건축위원을 선정하였다. 위원장에 양재엽 목사, 서기 강영명, 회계 정원서, 위원으로 한명수, 이종성, 정희순, 정태우, 서용학을 선정하였다.⁵⁶

드디어 1939년 10월 2일(월) 저녁부터 10월 9일(월)까지 이문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던 중 8일 주일 오전 예배시에 이문주 목사가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오후 예배시에는 교회당 신축을 위해 특별연보를 하였다.⁵⁷ 일제의 압박이 가중되어 가는 시기에 놀라운 구상이라 하겠다.

1940년 1월 6일에 개최된 제119회 당회에서 1940년을 ‘진흥년’으로 작정하고 표어는 ‘뜻대를 향하여 경주하자’ (빌 3:14)로 정하여 교회부흥을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경산교회의 첫 표어제정이었다.

또한 경산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찬양대장에 정태영, 지휘에 서용학을 임명하였다.⁵⁸ 찬양대의 조직일자나 그 규모 등은 알 수 없으나 경산교회 찬양대가 이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찬양대원은 일반교인들과 함께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나 찬양 시에는 일어서서 찬양을 하였다. 그러나 교회에서 의자를 6개 만들기로 하고 정희순, 서용학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맡겼다.⁵⁹ 찬양대 조직과 함께 곧 찬양대용 의자를 교회에서 준비하여 찬양대원들 만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찬양 시 일어나는데 수월하도록 배려하였다.

55 경산교회 제직회, “제112회 제직회록” (1939. 10. 1).

56 경산교회 제직회, “제112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39. 10. 15).

57 경산교회 당회, “제113회 당회록” (1939. 10. 4), 경산교회 제직회, “제110회 제직회록” (1939. 4. 2), 경산교회 제직회, “제111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39. 9. 24).

58 경산교회 당회, “제119회 당회록” (1940. 1. 6).

59 경산교회 제직회, “제115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40. 1. 10).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내당번을 정하기로 하고 남자는 최재학 집사, 여자는 백귀복 집사로 정하였다. 예배시 안내는 전에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나 기록상으로는 경산교회의 첫 안내당번이다.



정희순 집사

한편 경산교회 두 번째 집사 장립식이 1940년 9월 15일 주일에 거행되었다. 피택된 정희순, 최재학 두 사람이 장립하였다. 장립하는 두 집사에게 교회에서 구약성경 1권을 선물하고 교회에서 청첩장 50매를 준비하였다.⁶⁰ 정희순 집사는 이듬해인 1941년 9월에 아쉽게도 가족과 함께 경산시 남천면 대명교회(현재 남천교회)로 이명가게 된다.⁶¹ 정희순 집사는 그후 대명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양재엽 목사는 1940년 12월 10일부터 개최된 경북노회 제39회 정기회록에,

「...경산읍 교회 목사 양천호(梁川浩)씨의 시무사면은 받기로 하였아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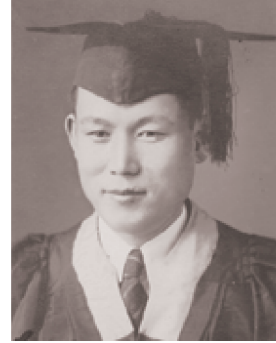
라고 기록되어있는데 분명히 경산읍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임시기가 같고 성(梁)도 같은데 이름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가 없다. 양재엽 목사는 1940년 11월 16일에 개최된 제127회 당회를 마지막으로 사회하면서 후임 이상엽 목사를 청빙키 위하여 11월 17일 주일 공동의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직회는 1940년 12월 8일에 개최된 제129회 임시회 사회를 마지막으로 1940년 12월에 사임하였다. 비록 약 2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조직적인 목회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60 경산교회 당회, “제126회 당회록” (1940. 9. 1).

61 경산교회 당회, “제132회 당회록” (1941. 9. 11).

제4절 이상업목사 목회

일제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을 때 양재엽 목사 후임으로 이상업 목사가 부임하였다. 제39회 경북노회가 1940년 12월 10일에 개최되었는바 13일 회의에서 경산읍 교회에서 이상업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함을 허락하기로 가결하였다. 1940년 12월 29일 제직회에서는 임시회장이 이종성 장로로 되어있고 1941년 1월 5일에 개최한 제115회 제직회 회장은 이상업 목사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업 목사는 1940년 12월 30일부터 1941년 1월 4일 사이에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임 목사로 청빙허락을 받았으나 위임식을 했다는 기록이 당회록이나 제직회록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업 목사

이상업 목사 부임후 1941년도 직분자를 선출하였다. 남녀집사를 각 7명씩 선출하기로 하여 3내지 4명씩 선출하던 서리집사를 7명으로 증가하여 선출하나 남 집사에 김명섭, 정태영, 은소운, 이도수, 서용학, 김 덕과 장립 집사가 동참하였다. 여 집사는 정범선, 신차희, 문봉금, 사봉희, 권영희, 서혜수, 백귀복 이었다.

주일학교 조직과 권찰은 다음과 같다.

교 장 이상업 목사

유년부장 정태영

장년부장 이종성

반 사 남 : 한명수, 정원서, 정희순, 강영명, 안상기

여 : 권영희, 안순이, 서혜수, 백귀복, 김봉순

후보 : 김마리아, 정보석, 이두경, 조성용

권찰	삼북, 삼남, 서상	: 남 정원서	여 권영희, 사봉희
	상방동, 사동	: 남 서재준	여 권영희
	계양동	: 남 은소윤	
	평산동	: 남 조병규	
	삼풍동	: 남 은소윤	겸임
	임당동	: 남 배병원	여 최숙이
	중방2구	: 남 한명수	여 김효금
	중방1구	: 남 강영명	
	사정동	: 여 정범선	

1939년 무렵부터 예배당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제직회에서 예배당 신축을 위하여 석재 예배당을 시찰하고 설계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이상업 목사와 정원서 장로를 파송하여 준비하였다.⁶²

한편, 이 시기의 국제정세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의 해군기지를 기습하여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쟁이 더욱 가열되어 갔다. 처음에는 태평양 및 동남아를 장악하여 일본이 부르짖는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광대한 전선의 보급로 유지가 곤란하고 저력 있는 미국의 반격으로 1942년 6월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점차 일본을 압박하여 갔다.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함에 따라 일본은 여러 전선에서 고립되어 패색이 짙어지자 더욱 조선을 악랄하게 수탈함과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압박은 날로 더하여갔다.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헤매는 어려운 시기에 석조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마산에 가서 화강석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화물열차로 경산역까지 운반하였다. 이를 교회청년들이 무

62 경산교회 제직회, “제136회 제직회록”(1941. 2. 2).

거운 화강석을 소달구지에 싣고 교회마당까지 옮겨 쌓아 두었으나 시국이 날로 치열한 가운데 일제의 종교탄압이 가중되어 교회당건축은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과 의욕적인 실천이었다. 이상업 목사는 2년의 짧은 목회를 마치고 사임하였다.

제5절 이명석목사 목회



이명석 목사

1942년 12월 하순에 이상업 목사 후임으로 이명석 목사가 부임해 왔다. 1942년 12월 20일에 개최된 159회 제1차 임시제직회(임시회장 김병호 목사)에서 이명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사례비는 월 100원으로 정하였다. 1943년 1월 2일에 개최한 제140회 당회를 이명석 목사가 임시회장으로 사회하였다. 따라서 이명석 목사는 1942년 12월 하순에 부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명석 목사 위임식은 1943년 4월 11일 오전 11시에 거행되었다고 제2호 당회록 57면에 기록되어 있다. 이날 사회는 김봉도 목사, 서약 노회장 신후식 목사, 설교 유정순 목사, 권면 박내영 목사, 김병호 목사, 축사 이종성 장로로 기록되어 있다. 경산교회 12대 담임 목사이며 위임목사로는 제6대이다.

부교역자로는 김순덕 전도부인(1944. 4~1946. 1)과 강정에 전도사(1946. 1~1946. 11)가 시무하였다.

이명석 목사는 일제말엽에 취임하여 동시에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무렵 일본의 침략전쟁은 한층 가열되어갔다. 교회에서 12시 이후 집회금지, 야간집회는 전폐, 강제동원, 심지어 교회당도 일본군이 사용하여 사택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던 때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로 장립식이 있었다. 1944년 1월 30일 오전 11시에 이명석 목사 사회로 강영명, 최재학의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경산교회의 아홉

번째, 열 번째 장로장립이다. 최재학 장로에 대해서는 특별기고의 “경산교회와 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글이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다.

「1944년 7월 4일 본 교회 성전신축을 위하여 전교인이 회원이 되어 기성회를 창립하다.」



최재학 장로

윤영문 목사 목회시기인 1936년 1월 5일에 개최한 제57회 제직회록에 이미 교회당 신축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그 후 계속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석조 예배당을 짓기 위해 화장석 운반까지 하였으나 시국관계 및 일제의 탄압으로 보류되어 오던 중 이제 다시 기성회 재창립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1944년 주일학교 조직과 권찰은 다음과 같다.

- 교 장 이명석 목사
- 장년부장 이종성 장로
- 교 사 한명수, 정원서, 안상기, 강영명, 정태영, 권영희, 서혜수, 서○○, 이두경
- 유년부장 정태영
- 서 기 이승우, 서영복
- 교 사 서용학, 김두환, 안건수, 김덕용, 김애, 김춘옥
- 권 찰 삼 북 : 정원서, 삼 남 : 안상기
상 방 : 서재준, 평 산 : 조흥기
갑 제 : 강영명, 임 당 : 배병원
정 평 : 이종성, 사 동 : 김병섭
백귀복, 사봉희, 권영희, 정범선, 서혜수

또한 이 무렵에 구역제도를 신설하였다. 권찰제도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구역장제도는 처음이다. 당회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44년 4월 9일 본 교회 목회행정구역을 7구분하여 각 구에 구역장과 권찰을



치하여 구역 내의 신도지도에 관한사항과 전도에 관한 시무를 주관케 하다.」

그리고 권찰이 명심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권찰의 명심할 사항>

1. 출결석을 정밀히 조사할 사
2. 매주 일회씩 반드시 각 가정을 순회하여 그 형편을 살필 사
3. 특별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관자에게 보고할 사
4. 구역 내의 신자와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사
5.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구역집회를 힘써 장려할 사
6. 구역 내 신도로 하여금 주안에서 서로 교통하여 희로애락 간에 호상부조 하도록 장려할 사
7. 신자를 격려하여 구내전도에 노력할 사

이상의 기록을 보건데 권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어 오늘날에도 깊이 참고할 내용이다.

한편 경산교회 창립기념일을 당회에서 제정하였다. 다음은 제2호 당회록 61면에 기록한 내용이다.

「창립기념일, 본 교회 연혁을 상고한 결과 매년 9월 16일이 현재 예배당 가옥을 매입하여 처음으로 성회를 거행하는 날이 옴에 당회에서 결의하여 경산교회 창립 기념일로 결정하다.」

1944년에 들어서는 일본의 전세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는 듯했다. 6월에는 사이판에서 전멸당하고 10월에는 해군이 대손실을 당했으며, 이듬해 6월에는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군이 노르망디해변에 상륙하여 마침내 프랑스 수도 파리를 수복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이 5월 1일에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입성하여 마침내 5월 7일에 독일의 항복을 이끌고 1945년에 동쪽에서는 필리핀을 수복, 패전이 임박하자 일제의 기독교 탄압은 극심하였다.